

UNIFICATION
EDUCATION
MAGAZINE

VOL. 3 2006. 6

통일교육소식

www.uniedu.go.kr





대한민국 청소년 대상 평화·통일 디카사진 사이버공모

본 소식지 2005년 10월호를 통한 1차 선정작 발표에 이어 2차 공모를 실시합니다.
학교 및 일상생활 속에서, 숨쉬듯 평화와 통일을 느끼는 여러분의 맑고 투명한 눈과 마음을 만나고 싶습니다.
평화를 사랑하고, 통일을 염원하는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 응모부문**
 - Culture Zone: 일상 곳곳에서 느낄 수 있는 평화와 통일 관련 이미지
 - School Zone: 학교 미화 '통일란' 전체 또는 특정부분 클로즈 업 이미지
- 응모자격**
 - 초중고교 등 전국 각급학교 재학생
- 응모일정**
 - 2006년 6월 29일~ 9월 29일
- 응모방법**
 - 통일교육원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있는 응모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아래 문의/접수 주소로 응모서와 작품 프린터물 3장 우편접수 (단, 응모작품은 우편접수와 함께 담당자 이메일 hksong94@unikorea.go.kr로 동시 전송)
- 응모형식**
 - 사진규격(품질) 300만 화소 이상(약 1Mbyte 내외) 사진파일 형태 jpg파일로 한정
- 입선특전**
 - 최우수 1명 400만화소급 디카 1점 및 USB 저장장치 1점
 - 각 부문 우수 3명 15GB MP3 플레이어 1점씩
 - 각 부문 입선작품 본 소식지 익호에 게재 및 정기 전시전에 전시 예정
- 선정작 발표**
 - 선정작은 최종수상작 후보자격을 가지며, 본 소식지 12월호 & 홈페이지 내 발표 및 개별통보
- 유의사항**
 - 응모서 작성 시 작품명, 작품설명, 촬영날짜 및 장소 등 기재
 - 입상 시 신청서 내에 있는 개인정보에 의거, 선정통지 및 경품이 발송되므로, 응모자의 이름(실명), 연락처, 주소, 주민번호 등 정확히 입력 요망
 - 메일로 전송하는 파일명은 반드시 '참가자 성명.생년월일.jpg' 형태로 제출
 - 작품 응모자가 학생신분임을 알 수 있도록 응모서 확인란에 학부모 및 담당교사의 사인 필히 명기 요망
- 참고사항**
 - 제출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음
 - 반드시 사진규격과 파일형태 준수 요망
 - 수상작품 일체의 초상권은 통일교육원에 귀속되며 각종 평화·통일 대국민 홍보에 활용됨
- 문의/접수**
 - 통일부 통일교육원 연구개발팀 디카사진 공모 담당자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우 142-715) 전화: 02) 901-7165 홈페이지: www.uniedu.go.kr(공지사항)

표지 그림: 뿔(Rhin)-녹색지대(東江)
56X70cm / 종이, 먹, 채색 / 1999년
원용*함을 의미하는 린*이 그의 그림 테마이며 이 작품에서도 '하나가 모두요, 모두가 하나 됨' 을 심미있게 표현하고 있다

작가 임무상
한국 미술세계화전(LA·New York) 등 전시참가 및 개인전 다수. 현재 (사)한국전업미술가협회* 자문위원, 씨울회 운영위원. samganglim@hanmail.net, www.rhin.co.kr



2006년 6월 22일 발행(통권 제3호) 등록번호 11-1250054-000033-09
발행인 김홍재
발행처 통일부 통일교육원 www.uniedu.go.kr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Tel 02)901-7160-7 Fax 02)901-7088
주관 통일교육원 연구개발팀 Tel 02)901-7165
편집위원 남부호·오일환·이도희·정용민·허윤
편집기획·제작 (주)경향C&L www.kup365.com Tel 02)733-0365
북디자인 Design B612
※ 본지에 실린 내용은 무단복제를 금하며 통일교육원의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통일교육소식 Contents

Unification Education Magazine VOL. 3 2006.6

02	공고-1	평화·통일 디카사진 사이버 공모
04	특별기고	이중석 통일부 장관
06	취임 인사말	김홍재 통일교육원 원장
07	권두 칼럼	새로운 통일교육의 地坪 _ 강석승
08	공고-2	제1기 'UEM' 객원/명예기자 추가모집
09	여기도 '통일혈맥'이 흐르는 땅	민통선 내 '경순왕릉' 완전개방 _ 편집부 'DMZ박물관' 건립 _ 편집부 임진강 현장 에세이 _ 이재석
16	통일교육 현장 안팎	북한 이해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남북한 화해와 협력의식 증진 _ 이상철 독일사례로 본 남북한 교육통합의 모색 _ 이용자 첫 공식 대안학교 '한겨레중·고등학교' _ 전치균 교민 대상 통일교육교재 개발을 위한 미주 탐방 _ 양상완 '하나' 라는 감정 (하나원을 다녀와서) _ 김현경
31	새터민들의 24시	탈북작가 최진이(인터뷰) _ 허윤
34	NGO's 소개	(사)남북경제협력진흥원 _ 임원근
37	통일마당	북한 국보급 문화재 특별전 지상 갤러리 _ 편집부
40	'금강산 체험연수' 분석 & 평가	_ 김희봉
43	금강산 여행기	가슴 속엔 아직도 그 산과 바다가 _ 김도영
46	북한 깊이보기	북한주민의 생활경제 속 화폐 _ 김병욱
48	통일을 여는 역사	고구려 '안학궁터' 남북 공동발굴 _ 이인철
51	북녘땅 체험기	'평양-남포 통일마라톤(순)대회' 출정기 _ 최진섭
54	공트	영변 할아버지 _ 조영훈
58	평화번영정책 추진성과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 개소 7개월 등
60	남북경제협력	주요 통계로 본 오늘의 남북관계 등
62	이산가족 상봉과 인도적 지원	
63	남북 사회문화 교류	지자체·NGO의 방북행사 등
64	사회단체 통일교육활동 & 통일교육원 주요행사	
65	독자 엽서	
67	통일·남북 관련 신간안내	



이중석 통일부 장관

“왜 통일을 해야 하나요?”

우리가 학교를 다니던 1960년대는 전쟁의 비참함에 대한 기억이 생생한 시기였고, 분단은 말 그대로 몸의 일부가 찢어진 것처럼 생경하고 아픈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는 찢어진 몸이 당연히 회복되어야 하는 것처럼 분단된 조국도 곧 통일될 것이며 당연히 통일되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즉,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훼손된 몸이 온전히 치료되지 않은 채 아물게 되면 불편하기는 하지만 그런대로 살아가듯이, 우리나라도 분단된 지 60여년이 지나다보니 그 속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들은 이것을 정상인 것으로 여기고, 불편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요즘 아이들은 “왜 통일을 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하나 봅니다. 우리는 이런 현상을 두고 아이들이 문제가 있다고 말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사태를 맞출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왜 통일을 해야 하는지를 친절하게, 그리고 충분히 설명해 주는 것일 겁니다.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당위적 측면과 현실적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먼저 당위적 측면을 보면 훼손된 몸이 원래 상태로 복원되어야 하듯이 수천 년 간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로 살아온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1990년대 구소련이 해체된 이후 여러 나라가 갈라져 나왔는데, 그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두가 민족을 단위로 나라들이 갈라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 누구도 통일을 예상하지 못했던



독일민족은 구소련이 붕괴되는 틈을 타서 순식간에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민족이라는 형질은 어떤 계기가 주어지면 하나로 뭉치는 강한 응집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아직 갈라져 있지만 긴 역사의 흐름에서 볼 때 어떤 계기가 오면 분명히 하나로 될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같은 핏줄, 같은 언어, 같은 역사를 우리 몸 속에 지니고 있는 우리 민족의 형질은 하나의 공동체를 회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현실적 측면에서 통일의 필요성을 보려면 우선 분단으로 인해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피해를 보고 있는지, 그리고 통일이 되면 어떤 이득을 보게 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일



니다. 제가 학교에 다니면서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대륙과 해양으로 진출하기에 모두 유리하다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떠했습니까? 해방 후 분단과 전쟁을 거치면서 우리는 ‘섬 아닌 섬’이 되어 살아 왔습니다. 대륙으로 가는 길은 완전히 봉쇄되어 오직 바다로만 나가야 했습니다. 그런 악조건에서도 우리나라는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을 이룩했습니다.

다른 한편 세계화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지금의 세계는 강자만이 살아남는 무한경쟁의 시대, 나라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 무엇이든 다 하는 살벌한 시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북한과 화해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북한의 노동력과 자원이 우리의 자본 및 기술과 결합되고, 나아가 통일이 되어 대륙으로 가

는 길이 열린다면 우리나라는 분명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입니다.

이런 경제적 측면 외에도 분단은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이산가족의 아픔입니다. 가족이 헤어져 살아야 하는 것만큼 큰 고통은 없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 문제에 관한 한 시간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보고 싶은 가족을 가슴에 묻은 채 세상을 떠나야 하는 이산가족이 하나 둘 늘어가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분단은 또한 우리에게 항상 전쟁의 위협과 긴장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전쟁위기가 나올 때마다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주식시장이 요동치던 것을 생각하면 분단의 긴장이 우리의 일상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왜 통일을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은 이제 ‘통일은 반드시 해야 한다’ 는 명제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통일된 조국을 물려주는 것은 분명 우리 세대의 몫입니다. 통일교육을 통해 원래 하나였던 조국을 온전한 형태로 회복하여 주고, 대륙과 해양으로 무한정 뻗어 나갈 수 있는 원대한 비전을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 주는 것도 역시 우리 세대의 역할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작은 책자가 선생님들의 책상 위에서 통일한국의 미래를 심어주는 교육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항상 통일교육에 애써주시는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통일교육의 커뮤니케이션 場이 되길...



김홍재 통일교육원 원장

통일교육원이 있는 이 곳 수유리에는 푸르른 신록이 넘쳐 우리의 마음을 희망으로 가득 차게 합니다. 남북관계에도 추운 겨울보다는 따뜻한 훈풍이 넘치는 시절이 계속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어느 덧 남북정상회담으로 일구어 낸 '6·15공동선언'이 내외에 공포된 지 6돌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선언으로 오랫동안 막혀있던 남북관계는 다방면에서 붓물 터지듯 양적·질적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평양이나 개성 등 북녘 땅을 밟는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꿈 속에서나 가 볼 수 있는' 그런 상상 속의 세계도 아니고, 지난 80~90년대처럼 아무나 갈 수 없는 금단의 땅도 아닌, 우리와 같은 피를 나눈 동포가 살고 있는 '땅'이라는 인식이 국민들의 가슴 속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식과 함께 지난 5년 동안 남북관계는 괄목할 정도로 발전해 왔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남북을 왕래한 주민들은 88,000여 명으로 2004년도에 비하여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금년에도 5월 현재 4만여 명을 넘어서고 있는 등 이제 북한은 더 이상 낯선 존재가 아니고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북한을 쉽게 방문할 수도 있고 북한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할 기회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북한과 북한 사람들에 대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경제협력을 비롯하여 북한 사람들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면 무엇보다도 북한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통일교육도 이제는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것보다 남북한 교류협력과 신뢰 조성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실사구시^{實事求是}적인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청소년 통일교육은 지금보다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10~20년이 지나면 한반도는 지금과 확연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그 날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민족의식과 통일의식을 일깨워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무관심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머리뿐만 생각하는 통일교육에서 가슴으로 느끼고 체험하는 통일교육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통일교육원은 2004년 '금강산체험학습'을 특별프로그램으로 마련하였고, 2005년에는 '통일문화페스티벌'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전국의 교육일선에서 청소년들의 통일교육에 힘쓰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통일교육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통일교육소식'지를 창간하였습니다.

이제 그 '통일교육소식'지가 제3호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선생님들의 폭 넓은 대화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편집진들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통일교육소식'지가 선생님들과 통일교육원이 청소년 통일교육이라는 소명을 위해 서로의 아이디어를 나누는 통로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통일교육의 地坪

우리는 지금 과거 그 어느 때 보다 '변화'의 범위가 넓고, 그 속도나 진폭이 매우 큰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런 시대 상황을 정부는 '변화와 혁신'으로 헤쳐나가고 있으며, 국민들 또한 일상 속에서 나름의 열^열과 성^성을 다해 시대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다.

인주의-물질주의 가치관의 확산 때문이기도 하지만, 먼저 생각할 점은 앞서 언급한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세태' 속에 자라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 통일교육의 내용이 다소 지루하고 딱딱하다는 것이다.

특히 '참여정부'는 과거 어느 정권 때보다도 남북관계의 진전을 통해 세계 유일의 냉전 잔재가 남아 있는 한반도에서의 분단구조를 청산하기 위해 진력하고 있으니, 그것이 바로 '평화변영정책' 임은 널리 알려져 있는 바와 같다. 이에 따라 국민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 역시 시대적 조류와 요청을 적극 반영하여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기에 교육내용이나 방법 등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 할 소명을 부여받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통일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이해가 부족한 계층을 대상으로 '국민 속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로는 이런 노력과 함께 국민들이 한반도 통일환경 및 대북 지원, 이산가족-납북자-인적 물적 교류, 북한인권 등 남북간 주요 쟁점-현안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각종 문헌교재 발간과 더불어 비주류 시대에 맞게 생동감 있고 역동적인 영상교재 등 '국민체감형 통일교육 콘텐츠'를 개발, 제공해야 할 것이다.

냉전구도가 지배하던 70년대까지의 통일교육이 '멸공·승공'에 치중했다면, 80년대에는 '반공'으로, 90년대에는 '통일-안보'로, 그리고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진 2000년대 이후에는 '화해-협력'과 '평화-번영'으로 초점을 바꾸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셋째로는 유비쿼터스^{Ubiquitous} 통일교육을 구현할 수 있도록 현재 통일교육원에서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현직교사들 대상 원격교육과 웹진^{Unizine} 발간 등 사이버 통일교육을 더욱 활성화시켜야 한다.

특히 '참여정부'가 출범한 이후 지난 3년여간 남북간 신뢰와 평화-번영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을 위해 통일교육 내용도 국민들로 하여금 변화하는 통일환경과 북한실상에 대해 균형 있는 이해와 판단능력을 함양토록 하는데 중점을 두어 왔다.

넷째로는 89개 회원단체가 가입해 있는 '통일교육협의회' 및 9개 지역통일센터, 12개 통일관 등과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가운데, 해당지역 단체-주민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여 통일교육의 파급효과를 확산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사회 일부 보수계층에서는 북한과 평화적인 대화-협상방법으로 통일을 일구어 내려는 정부정책에 대해 부정적 인식과 냉소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리고 역시 일부이긴 하지만 청소년·학생층에서 나타나고 있는 통일에 대한 관심이 저조한 것도 사실이다.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퍼주기' '끌려다니기' '저자세'라고 하는 등 나름대로의 선입견을 가지고 흑백논리를 펴는 전자의 입장은 그만큼 통일교육의 중요성을 새삼 환기시켜주고 있다고 하겠다. 또한 후자의 경우처럼 '통일 무관심 현상'이 점증하는 이유는 최근의 학교교육이 성적 지향적인데다 학생 개인들의 개



강석승 行博·통일교육원 연구개발팀 팀장









통일부 통일교육원 제1기 'UEM' 객원/명예기자 추가모집

통일교육소식지 'UEM' 은 지구촌 유일의 분단지역인 한반도의 평화공존과 통일을 위해
가슴으로 고민하는 당신의 머리와 눈, 그리고 귀를 기다립니다

- | | |
|---|---|
| 모집부문
〈객원기자〉 인터뷰 및 스크립터, 아트 포터 및 취재촬영
〈명예기자〉 일상 속 평화와 통일관련 소재 발굴 및 취재 | 〈2차 면접전형〉
1차 합격 개별통보 후 추후 면접 전형일 홈페이지(www.uniedu.go.kr 공지 및 개별통보 |
| 응시자격
초·중·고교 등 각급학교 학생 및 교사와 대학생 및 일반인
(성별·학력·나이 상관없이 해당부문 관심 있는 자 추천도 가능) | 〈모집마감〉
2006년 9월29일

〈접수 및 문의〉
assa@khan.co.kr로 'UEM 객원기자 응시' 제목으로 접수 및 문의
* 응시 의사가 있는 분들 중 UEM 창간호 및 2호가 필요하신 분은 위 메일로 받을
주소와 성명, 연락처를 보내 주세요 |
|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공통: 일반서식의 이력서·자기소개서
객원기자: 통일 또는 평화(국내 또는 국제) 관련 칼럼 1건(200자 원고지 7장 내외)
* 아트 포터 및 취재촬영 응시는 통일 또는 평화 이미지 사진파일 2점 제출
명예기자: 평화와 통일 관련 소재 또는 관심영역 기사(200자 원고지 5장 내외) | 지원 및 혜택
기자 업무수행에 필요한 소정의 활동비 지원
해당부문 활동경력 인정서 발급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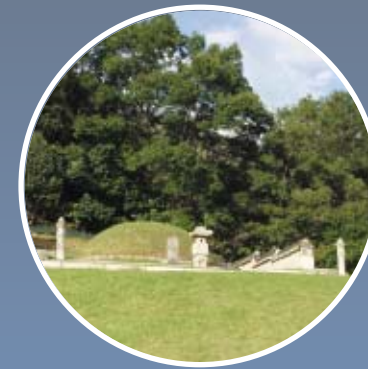
1차선발 'UEM' 객원 및 명예기자 프로필

- | | | |
|--|---|---|
| 〈객원기자〉 | 〈명예기자〉 | 〈아트 포터〉 |
|  조휘제(57)
동국대 북한학과 (박사)
서울생활과학고 교사 |  송화영(24)
통일교육문화원 교육담당 간사 |  양호근(22)
제주대 언론홍보학과 4년(재) |
|  이점호(32)
고려대 국제대학원(석사)
민화협 정책과장 |  이국희(22)
선문대 국제경제학과 3년(재) |  오세호(20)
세종대 패션디자인과 3년(재) |
|  최관(25)
동국대 경찰행정학(석사)
경찰뉴스신문 편집국 주간 |  김지예(21)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3년(재) | |
|  최우진(25)
동국대 경찰행정학(석사)
경실련 통일협회 활동 |  이현순(18)
서울생활과학고 3년(재)
교내 통일연구반 차장 | |



| DMZ에서 불어오는 통일바람 |

여기도 '통일혈맥'이 흐르는 땅



| 민통선 내 '경순왕릉' 완전개방 | 'DMZ박물관' 건립 | 임진강 현장 에세이 |



역내 '통일체험 학습지' 로 업그레이드

민통선 내 '경순왕릉' 완전개방



지난해 연말까지만 해도 민간인 출입통제선(민통선) 내에 위치하고 있어 그 곳을 관람하려면 가는 날로부터 3일전까지 군청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할 군부대의 허가를 받아야만 했으나 이젠 당일 주민등록증 확인만으로 방문이 가능해진 우리네 역사의 한 편이 있다. 신라의 마지막 임금 경순왕의 왕릉이 있는 곳.


관람시간 오전 9시~오후 5시

연천군은 “일반인이 관할 군부대에 알려지지 않고 자유롭게 경순왕릉을 방문·관람할 수 있도록 완전개방하고 있다. 다만, 비무장지대(DMZ) 경계선인 남북한계선과 인접하고 있는 점을 고려, 관람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지로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순왕릉 주변은 미확인 지뢰지대인데다 민통선 안에 있어 사전허가 등 출입이 매우 엄격하였다. 그러다보니 각급학교 역사 체험 학습 프로그램 진행이나 일반 관광객들의 관람 불편민원이 있어 왔다. 이에 연천군은 지난 2004년 3월부터 관할 군부대와 다섯 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민통선 초소 이전에 합의하고, 기존 초소를 민통선 안쪽으로 옮기는 한편 사업비 3억 4천여 만원을 들여 경순왕릉으로 이어지는 도로 1.1km구간에 철제 담장을 새로 설치하고 군부대 경계근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주변 5곳에 폐쇄회로 TV(CC-TV), 안내용 방송시설, 가로등 등을 설치했다.

통일·안보 관광지와 연계한 투어 개발

‘연천-민통선 예술제’ 개최와 안보교육에 생태체험까지 경험할 수 있는 ‘DMZ투어’ 등을 기획한 경기도 연천군은 이번 경순왕릉 완전개방을 계기로, 155마일 휴전선상 북한과 가장 가까운 전망대인 ‘태풍 전망대’와 통일기원 각종 종파집회가 가능하게 조성(1998년 4월)한 ‘열쇠 전망대’, 그리고 제1땅굴의 ‘상승 OP’와 1·21사태 당시 김신조 무장공비 침투로, 경원선의 철도 중단점 등 군내에 산재해 있는 통일과 안보 관련 관광지와 연계한 새로운 관광코스를 더욱 알차게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 

편집부

비운의 신라 마지막 왕 '경순왕'

경순왕은 신라 제56대, 마지막 왕(재위: 927~935)이다. 본관은 경주^{경주}, 성은 김^김, 이름은 부^부로 문성왕의 6대손. 927년 경애왕이 후백제 견훤에 의해 포석정에서 시해된 후 견훤에 의해 옹립되었다. 그러나 기울어진 국력을 통감하고 고려 왕권에 국기를 넘긴다. 이에 큰아들 미의태자^{미의태자}는 금강산으로, 막내아들 범공^{범공}은 화엄사로 들어가 불교에 귀의한다. 이렇듯 비운의 삶을 살던 경순왕은 고려 경종 3년(978년)에 세상을 떠난 뒤 다른 신라 왕들과는 달리 경주가 아닌 현재의 경기도 연천에 묻힌다.

경순왕릉은 오랜 세월동안 실전되었다가 1748년(영조24년)에 비로소 다시 찾게 되었는데 왕릉의 구성을 살펴보면 원형의 봉분 하단에 돌레돌을 돌렸고 봉분 앞에 상석·표석·장명 등과 석양 1쌍·망주석 2기가 배치되어 있는데 석물들 대부분은 조선 후기 양식을 보여주고 있으며 망국, 후 조성된 연유 때문인지 여느 왕릉에 비해 매우 소박하다.

- 소재지: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고랑포리
- 지정면적: 3,967㎡
- 높이: 3m
- 1975년 사적 244호로 지정



DMZ박물관 전시연출 주요 코너

- ① 'DMZ의 역사' 코너: DMZ 탄생과정 및 전반, 6·25전쟁 등
- ② '끝나지 않은 전쟁' 코너: 공동경비구역, DMZ의 흔적 등
- ③ '5천년 문화발자취' 코너: DMZ내의 문화·역사적 가치 재조명 등
- ④ '민통선 사람들' 코너: 민통선 사람들의 삶, 각종 유물 등 모형
- ⑤ '죽어도 죽지 않는 땅속의 아픔' 코너: 각종 지뢰 전시 및 체험
- ⑥ '통일을 향한 꿈' 코너: 정상회담 등 회담, 이산가족 상봉 등
- ⑦ 'DMZ의 자연생명과 생명치유의 꿈' 코너: DMZ의 대형모형 및 사계절 영상
- ⑧ '평화의 동산' 코너: 베를린장벽 조각 등 통일염원 작품 전시
- ⑨ '대북방송장비' 코너: 확성기, 전광판 등 대북심리전 장비 설치
- ⑩ '최첨단 영상관' 코너: 3D 입체 Ride Simulation(1세트) 설치
- ⑪ 기타: 학술정보검색(자연생태, 역사·문화, 전쟁 등)

‘분단 1번지’에서 ‘통일 1번지’로

민통선 내 ‘DMZ박물관’ 건립

20세기가 남기고 간 냉전의 유적지 DMZ내에 ‘역사와 생태’를 하나로 아우르는 ‘DMZ박물관’이 세워진다. 강원도 동부전선 민통선 내(고성군 현내면 명호·송호리)에서 지난 3월 30일 기공식을 갖고 2008년에 완공되는 이 박물관은 DMZ 내 산재해 있는 역사·문화는 물론 반세기 이상 인간의 손이 미치지 않은 자연 생태계를 보고 만질 수 있는 역사·자연 체험학습장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지구촌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한반도의 DMZ(비무장지대)에 대해 세계인의 눈이 집중되고 있음에도 DMZ에 대한 참모습들을 한 눈에 보여주는 관련 콘텐츠 집약형 공간이 없었으며, 특히 남북 협력시대를 열어가는 요즘 남북 화해무드가 알차게 영글어 갈수록 우리들 기억 속에서 사라지게 될 DMZ의 산 기록들을 체계화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지난 2002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이다. 강원도가 세계유일의 분斷道로서 이 사업을 주도하는 역사적 책무를 맡은 셈이다.

총사업비 460억원, 부지 4만 4000평, 연면

적 3200평, 3층 규모로 들어설 이 시설물에는 DMZ의 모든 것을 담아낼 박물관과 각종 회의나 세미나, 연극공연, 기획전시 등이 가능한 다목적 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미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2004. 6. 3~4, 설악산) 합의로 지난해 8월 철거가 완료된 대북선전용 방송장비(대형 전광판·확성기 포함) 8종 16세트를 무상양여 받아 실물 그대로 전시하는 한편, 155마일 비무장지대에 녹아있는 시간적 역사성과 공간적 존재들을 모두 조사·분석하여 각종 역사·생태자원 전시 등 안보교육장이면서도 자연생태 관광자원 콘텐츠공간으로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DMZ의 사계절을 담은 영상물과 DMZ박물관 벽면에 휴전선 전체의 축소모형(길이 40m)을 비롯, 대성리 마을, 철원 노동당사 등 군사분계선 주변의 분단의 현장을 눈으로 보여줄 각종 시설물도 모형화 시킬 예정이다.

강원도는 DMZ박물관을 남북연결 동해선 도로·철도와 연계하여 남북관계 개선의 교두보 역할 및 인간의 이데올로기가 빚어낸 남북분단의 아픈 역사와 미래 희망의 땅으로서 세계인의 교육장이자 세계적 역사 관광명소로 자리매김 시켜 나가는 청사진을 현재 그리고 있는 것이다. 편집부

임진강 참계마냥 옆으로만 향한다면...

임진강 현장 에세이

외 나무다리 기차길로 임진강을 건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나무판을 덧댄 경의선 철교, 한쪽에서 차가 들어오면 반대편에선 마냥 기다려야 했던 시절 말입니다.

아릿한 추억으로 기억되기도 합니다만 그렇게 건너 남과 북이 만나자면 한 세월일 거라며 다리 하나 넓히지 못하는 남북관계를 비판하던 기억이 납니다. 어렵사리 강을 건너던 그때, 남쪽과 하나도 다를 것 없는 강 건너 산천이건만 웬지 서늘한 기운이 느껴지고 못 올 곳을 온 것 같고, 그래서 남북이 만나는 일도 이처럼 낯설 것이란 생각에 아팠었습니다.

임진강이 '분단의 강' 이라 해도 지금쯤이면 평화스런 이름으로 불려도 좋을 텐데...

민간인의 출입을 막는 민통선은 여전히지만 지금은 4차선 큰 다리가 놓여지고 임진강을 건너는 일도 조금은 쉬워졌습니다. 하지만 전진교나 복진교·비룡교 등 임진강을 건너는 다리마다 전쟁의 흔적은 남아있습니다. 임진강이 분단의 강이라 해도 지금쯤이면 평화스런 이름으로 불려도 좋을 텐데... 리비교나 털교나 하며 미군 이름으로 불리던 다리를 이나마 바꿔 부르는 걸 다행으로 여겨

야 할지요. 쉽게 평화통일을 말하지만 속 깊은 곳에선 북한을 제압해서 통일하겠다는 생각이 여전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임진강 주변을 통일관광지로 여겨 많은 사람들이 이 곳을 찾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고를 '냉전시대로 잡아두는 관광지' 또한 이 곳이고, 그 상징적인 곳이 바로 땅굴입니다. 땅굴은 적대적인 감성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만 다양한 이야기는 상실되고



좌우를 살필 수 없는 직선의 논리, 좁은 구멍을 통해 하늘을 봐야하는 동굴의 논리에 이성은 간히고 맙니다. 관광객들이 그 곳을 돌아 나와 가지게 되는 생각은 무엇인지, 어떤 방식으로 통일을 이해해야 할지 혼란스러워 집니다. 땅굴의 북쪽 편은 콘크리트 더미로 막아 놓았습니다. 동굴은 미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두지 못하고 철벽같이 막혀 있습니다.

'평양 가는 기차' 를 기다리자는 말도 아이들은 의심 없이 받아들입니다

북한 개성이 조망되는 도라산 전망대는 그나마 남과 북의 관계를 전망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최근에는 개성공단이 눈앞에 들어서서 말로만이 아니라 남과 북이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를 실감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막연한 전망보다 발로 만나는 일이 백 번 낫다는 생각입니다. 멀리 개성 외곽을 바라보던 전망대에서 어느 날 느닷없이 건설현장이 보이고 '저곳 저기가 개성공단이구나' 라고 외

쳐보던 그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가까이서 남북이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에 비록 현장에는 서보지도 못했지만 내심으로 경치가 달라 보였습니다.

경의선 도라산역에서는 남북이 만나는 일이 단순해 보입니다. 평양방면 이정표까지 있으니 말입니다. 아이들이 훨씬 자유롭게 '평양 가는 기차' 를 기다리자는 말도 아이들은 의심 없이 받아들입니다.

이성으로는 통일을 수없이 얘기합니다. 그러면서도 현실로 받아들이고 살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임진강 북쪽 민통선 마을에 살게 되면서 수 없이 강을 건너다니지만 임진강 참계마냥 옆으로만 향할 뿐 북쪽은 생활의 고려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처음 민통선 마을로 이사 왔을 때 임진강이 흐르는 풍경을 보고는 저 모습을 그려낼 수 없다면 여기에 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생각 뿐 지금껏 뚱개고 앉아 임진

강을 위해 한 일이라곤 아무 것도 없습니다. 민족이니 통일이니 하는 말을 문득문득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가깝고 낮은 곳으로 가져올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임진강가에 살게 되면서 아름다운 풍경에 빠져 오히려 임진강의 의미는 잊고 사는 꼴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영뚱한 고민이 생겼지만 말입니다.

"사람이 상처 입은 땅에서 산천이 아름다울 수 있는가 하는. 수백만의 사람들이 잘린 제 허리를 무심하게 바라보는 이 자리가 아름다울 수 있는가 하는. 자연의 평화를 한꺼번에 무너뜨릴 비무장 지대 밖 중무장지대에서 이 이슬이슬한 평화를 아름답게만 바라봐도 좋은가 하는!"



이재석 파주시민회 사무국장
개성을 오가는 사람들만으로도 불비는 임진강. 박봉우 시인의 시처럼 '고구려 같은 정신으로 신라 같은 이야기를 쓰는 게 지금 우리의 숙제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통일은 우리 삶의 과제이자 '쉽 없는 긴 여정'

북한 이해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남북한 화해와 협력의식 증진



I. 운영 개요

학 생들에게 북한체제의 객관적 이해와 통일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갖도록 하는 한편 민족 동질성 회복과 통일 민족문화 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1)학교 내 교육환경 정비, 2)화해와 협력의식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3)범교과 통일교육학습 활동 전개 등으로 나누어 '통일교육' 연구를 실시하였다.

II. 운영 과제의 실행

1. 학교 내 교육환경 정비

가. 교실환경 조성

주요 학기 초의 환경미화기간에 교사와 학생이 함께 학교 내 교육환경을 조성하였다. 특히 2차년도에는 통일행사 시에 이루어진 학생활동 작품 중 우수작을 주로 게시함으로써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다.

나. 교수-학습 자료 확보

북한 이해를 위한 교육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통일 및 북한현실의 이해를 돕는 다양한 시청각 자료에 대한 확보 계획을 수립, 자료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고 이를 북한이해를 위한 교육에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다. 북한이해 위한 교사연수

북한이해교육과 관련하여 교사가 먼저 통일에 대한 소양을 넓히고 통일과 안보에 대한 균

형적 시각을 갖기 위하여 통일관련 교직원연수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2, 4주 월요일에 실시하였다.

2. 화해와 협력의식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가.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1) **가상 북한체험** 북한이해를 위한 가상 북한체험교육은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으면서 쉽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생활문화 소재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북한을 우리와 다른 세계로 인식하기보다는 우리와 밀접하게 관련된, 우리와 같은 문화를 갖고 같은 방식으로 생활하는 이웃으로 인식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통일교육 게시판을 설치·운영하고 통일 동아리인 한겨레지기가 북한말과 북한음악을 실제로 들려주는 동아리 발표 및 통일 도우미 활동을 전개하였다.

(2) **체험학습 프로그램** 바람직한 학교 통일교육은 이론 중심의 교육과 함께 현장 체험학습도 제공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분단의 현장과 전적지, 그리고 통일노력을 위한 체험학습의 현장을 직접 뛰어들어 경험을 해 봄으로써 통일실천의지를 기를 수 있을 것이다.

북한 이해를 위한 현장 체험교육

부 문	장 소	견학 및 현장학습 내용	대 상	시행일시
새터민 강연회	관성회관	· 우리들이 가져야 할 국가관 · 자유민주체제와 인간의 존엄성	1, 2학년	4월 24일
전쟁기념관	용산 전쟁기념관	· 6· 25 전쟁의 참상 · 평화통일을 위한 우리의 자세	간부학생	4월 11일

체험학습 프로그램 예)

① 통일 다짐 학생수련

통일 상식을 알아보는 퀴즈놀이와 통일포스터 그리기, '통일을 이루리라' 는 다짐의 시간인 캠프아이어를 하면서 하루를 보냈다. 그리고 다음 날에는 '평화 통일을 위한 우리의 자세' 라는 주제로 분임토의를 하고 북한학생들에게 편지를 쓰며 명상의 시간 등을 가졌다.

② 북한이해를 위한 현장 체험학습

체험학습은 학급별 또는 소집단별, 청소년 단체별 및 클럽활동 부서별로도 실시하며, 현장체험 학습 후에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발표하게 하여 토론을 실시하였다. 1차년도에는 북한에서 생활했던 사람과 실제로 만나 대화를 나누었고, 최근에 입국한 새터민을 초청하여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간부학생들에게 전쟁기념관 현장체험 학습의 기회를 제공, 통일시대의 주역으로서 가치관을 정립하도록 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동아리활동으로 대전의 통일관 관람과 북녘작가 미술대전에 참가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③ 통일주간 및 통일의 날 운영

2003년도에는 다양한 북한이해 교육행사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였으며 특히 6월 25일이 포함된 한 주를 통일주간으로 정하여 운영하였다. 2004년도에는 6월 25일에 통일의 날 행사를 가졌다. 다양한 주제의 북한이해 프로그램 학습을 통하여 북한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계기를 가졌으며 자연스럽게 통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당위성을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

④ 남북화합 체육대회

2003년도의 남북화합 체육대회는 6월 25일에 실시하였으며, 재미있고 다양한 주제의 북한 이해 프로그램 학습을 통하여 북한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계기가 되도록 진행하였다.

가상 북한 체험학습 주제

3월	백두산 정상 등반 체험
4월	이산 가족과의 만남
5월	흥남에서 큰아버지와 만남
6월	북한의 장마당 체험
7월	북한의 식생활 체험 - 1
9월	북한의 식생활 체험 - 2
10월	북한의 관혼상제
11월	북한의 연중행사
12월	북한의 직업세계 체험
2월	분단이후 북한의 역사 체험





통일을 위한 토론 학습 프로그램

프로그램	주요 내용	비고
북한이해를 위한 학급토론회	북한이해교육 기본요소 민주시민생활 등	매월 4주 월요일 각 담임
통일에 대한 나의 주장 발표대회	북한이해교육 기본요소 통일에 대한 의견 남북한 관련 문제	월1회 학급별 실시 연1회 교내대회

나. 토론 학습 프로그램 운영

매월 '학급토론회'와 '나의 주장 발표'를 하여 지속적인 토론 활동을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통일주간시에 교내 대회를 개최하여 남북한 관련 문제에 대하여 폭넓은 시각을 길러주었다.

- (1) 학급토론회 학급 학생중심의 민주적 의사결정과 자율규제를 통하여 민주적인 토론능력을 배양하였다.
- (2) 나의 주장 발표대회 학급토론이나 통일관련 자료를 읽은 후 통일과 관련된 학생들의 의견을 교내 대회를 실시하여 발표하도록 함으로써 통일의지를 심화시켰으며 나의 주장 발표 대회의 주제는 학년초에 계획하여 발표함으로써 학생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 (3) 통일의식 고취 프로그램 운영 통일 이후 민족 동질성 회복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북한 이해 교육을 실시하였고 통일 백일장, 표어·포스터 그리기, 나의 주장 발표 대회를 실시하였다.

3. 범 교과 통일교육학습 활동 전개

가. 교과별 관련 지도요소 추출지도

북한이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교과별로 민족 공동체 의식과 북한이해교육 관련요소를 추출하여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였다.

나. 교수-학습 과정안의 구안·활용

교과별로 북한이해교육 교수-학습 과정안을 고안하여 활용하였으며, 북한이해교육을 위해 추출된 관련 단원과 지도요소의 특성에 따라 토의학습, 문제해결학습 등의 학습 형태를 선정하여 지도하였다.

III. 운영의 결과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 및 통일의 필요성, 통일의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차츰 증가하였다. 통일 이후에도 주민화합을 위한 교육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많은 학생들이 응답하였다. 남북한에서 다르게 사용하는 언어를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학생이 대다수로 나타났으며, 남북한 인적·물적 교류량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학생의 비율이 1차 조사 때보다 7.31% 증가하였다.

학교 통일교육의 교수·학습 형태로는 교내 행사를 통한 수업과 토론식 수업을 효과적 측면에서 선호했으나, 2차 년도에는 ICT를 통한 수업이 뚜렷하게 증가했다. 그리고 통일교육의 내용면에서는 민족동질성 회복에서 북한이해교육으로 바뀌었다. 이는 북한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를 학생들이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IV. 결론 및 제언

1. 결론

- 첫째, 북한이해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남북한 화해와 협력의식 증진이라는 주제로 실천과제를 설정하여 실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 둘째, 다양한 북한관련 교수-학습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지속적인 북한이해가 가능한 환경이 마련되었다.
- 셋째, 교사들은 각 교과에서 통일관련 교육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넷째, 다양한 현장체험을 통하여 북한에 대한 바른 이해와 통일의 중요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 다섯째, 나의 주장 발표와 학급토론회 실시로 통일의 당위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 끝으로, 전 교과에서 통일교육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학생들의 통일지식이 깊고 넓어질 수 있었다.

2.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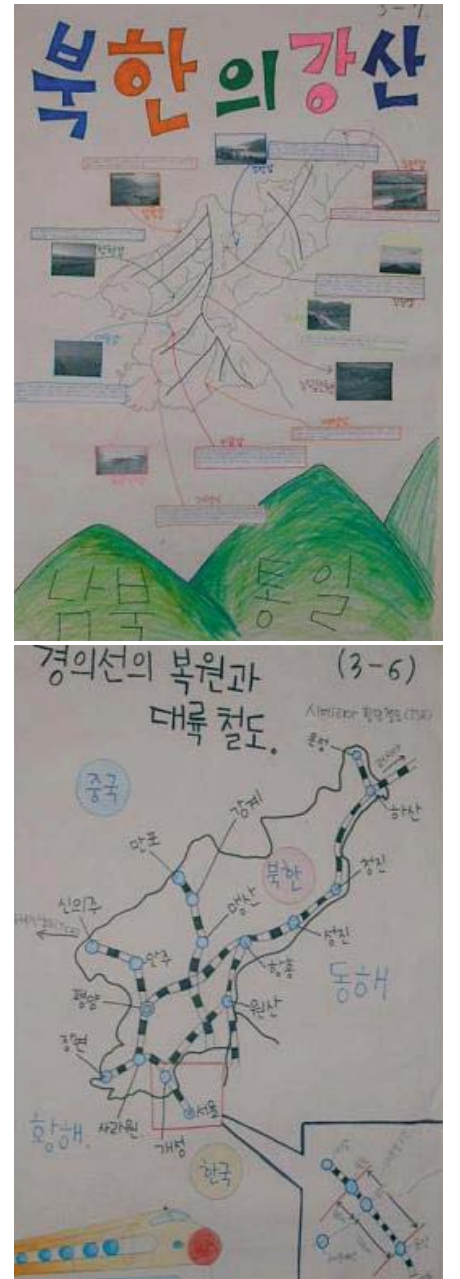
- 옥천상업고등학교에서 얻은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학교통일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네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할 것이다.
- 첫째, 통일은 우리 삶의 과제이자 무게라는 인식 하에 '쉽 없는 긴 여정'으로 보고 교육에 임해야 한다.
- 둘째, 재량 체험학습 및 행사활동은 반드시 사전 관련교과 이론지도와 사후 평가지도를 병행해야 한다.
- 셋째, 통일관련 영역을 학년·교과별로 분산 편성하고 그 내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넷째, 통일관련 교육시간 확보와 통일교육에 관한 자료를 재구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통일교육시범학교 운영보고서(2004. 10. 옥천상고 사례)에서 발췌



이상철 충북제천여고

지난 2년간의 시범학교 운영시간들은 학생들 보다 오히려 자신에게 더 많은 것을 일깨워준 시간이었다고. 몇몇 시범학교만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학교가 통일에 관심을 갖고 탐구할 때 통일의 그 날은 현실로 더 빨리 다가오지 않겠냐고 반문한다





독일사례로 본 남북한 교육통합의 모색 이질문화 극복을 위한 '예비적 재사회화' 지향

민족공동체를 재구성해 가는 과정이 곧 '통일'

가. 교육통합의 필요성

한 나라가 분단되었다가 다시 통일되어지는 과정은 엄청나게 많은 사건들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는 복잡한 과정이다. 독일통일 과정에서 통일조약의 서독측 대표였던 내무부 장관 볼트강 쇼이블레는 이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덤으로 서로 차단하여 다른 높이에서 머물러 있던 물이 한꺼번에 댐이 열려 휩쓸리게 되면, 절대로 천천히 섞이지 않고 한꺼번에 갑자기 커다란 물보라를 이루면서 섞이게 된다.” 그는 독일 통일의 경우가 바로 이러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통일이라는 것은 단순히 국가라는 정치제도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비록 한민족이었다 하더라도 오랜 세월동안 이질화 되었던 민족의 두 부분이 다시 하나로 동질화 되어가고, 민족공동체를 재구성해 가는 과정이다. 이런 어려운 과정을 준비하기 위해 통일교육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일교육지원법'에서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으로 충분할까? 독일의 교육사례를 살펴보자.

통일 전 서독의 학교 통일교육은 '정치교육'이라는 이름 아래서

수행되었다. 정치교육은 민주시민교육·평화교육·국제이해교육·통일교육을 내포하는 개념이었는데, 통일교육은 그 가운데 한 부분으로 다루어졌으며 일반적으로 '사회' 교과서에서 다루었다.

동독의 학교통일교육은 '국가시민'이라는 교과활동을 통하여 중학교부터 시작하였다. 교과와 내용은 첫째, 군사교육을 통하여 통일교육을 실시하였다. 둘째, 유소년조직과 청소년조직을 통하여 통일교육을 실시하였다. 정부는 교육과정 기본계획안을 만들고 이에 따라 교과서를 제작하였다.

동독과 서독이 각각 통일을 대비한 교육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시민들은 통일 후 교육적 차원의 적응에 어려움을 아직까지 느끼며 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통일교육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이고 거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양 체제 이질성 극복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

나. 교육통합의 의의

교육통합의 실상을 이해하는 것은 마치 시각장애자가 코끼리를 만지는 것과 같은 경우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통합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이를 통한 재사회화가 정치·사회·문화 등 분단과정에서 빚어진 양 체제 간 이질성을 극복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데에 있다.

통합이라는 용어는 통합의 어떤 측면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과정으로서의 통합^{process}과 '결과 혹은 상태로서의 통합'으로 구별할 수 있다.

Etzioni의 '통합을 통제하는 힘'이란 일종의 과정조건이다. 여기에는 강제적 힘(예: 군사력), 공리적 힘(예: 경제체계), 그리고 동화^{assimilation}를 가능하게 하는 힘이 있는데 교육은 바로 동화추진력^{assimilation power}에 관련된다. Etzioni는 통합이 성공적으로 되려면 위의 세 가지 힘들이 적절하게 조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합적 차원의 통일교육은 학습자의 지식면, 정서면, 의지적인 면의 3요소를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지식 면에서는 북한 및 통일문제에 관하여 객관적인 지식체계와 정보를 전달하고, 통일이라는 당위적이고 규범적인 의미에 내재된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바라보는 사고력과 판단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정서 면에서는 학습자들이 통일문제의 의사결정자라는 자긍심과 확신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의지 면에서는 통일 실현과정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고통과 희생이 불가피하므로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 통일 실현의지와 인내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될 때 교육은 국가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풍토, 즉 배경조건을 형성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각 분야별 철저한 준비가 전제

다. 독일의 교육통합이 우리의 통일교육에 주는 시사점

통일이후 독일의 교육통합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배경으로서 정치·경제·사회 통합의 양상이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정치체제의 제도적·운영적 차원 등 발전을 위한 착실한 준비가 있었다. 둘째, 경제부문에서 충실한 준비, 법적·행정 차원의 절차의 준비작업이 선행되어졌으며 셋째, '정신적 분단'^{Mental disunity}을 극복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준비했다는 것이다.

우리가 통일교육을 함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교육의 목표와 내용체계의 개선이 요구된다. 이를 위한 방향으로 민족의 동질성 보존·이질성 극복을 위한 내용으로 좀더 심도 깊고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둘째, 통일교육의 연령에 맞는 교수법의 변화가 필요하다. 수업방식으로 프로젝트 수업, 과학적 매체활용수업, 토론식 수업, 현장방문 기회 확대 등 총체적 수업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셋째, 남북한 학생 교류행사를 진행하고 이를 계기로 한 공간대 형성 기회의 마련이 필요하다. 즉, 북한 문화에 대한 접촉기회 확대, 공동체 훈련 등을 통해서 북한에 대한 저항감과 편견을 서서히 없애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로써 북한에 대한 무지와 물이해, 차별 등의



사회적 인식이나 교육이나 능력 면에서 뒤떨어질 것이라는 편견을 버리게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각 취학전교육기관, 초·중·고등 단계별 통일교육 시청각 자료보급이 요구된다.

끝으로 남북한 교육통합을 준비하려면 먼저 학습자의 수준과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학습방법을 처방하여 사회적응을 앞당기고 사회문제와 갈등의 소지를 줄여야 한다. 이와 함께 문화충격과 방향감각 상실을 남북한 똑같이 경험하게 될 것을 예상하고, 나오는 다른 것에 대한 관용한계(Tolerance Limit)를 넓혀주는 교육이 필요하다. 어차피 남과 북이 서로의 새로운 문화를 습득하여 재사회화를 거쳐야 한다면 미리 예비적인 재사회화를 실시하는 것이 이질적인 문화권과 부딪치게 될 새로운 환경에 대한 재사회화를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 입장에서 바로 보는 고찰이 우선돼야

라. 현재 통일교육의 개선방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통일 관련수업에 학생들이 관심이 없는 이유는 주로 다소 딱딱하게 여겨지는 교과서를 통한 교육 등 내용이 재미없거나, 통일교육을 진행함에 있어서 피교육자의 흥미를 끌 만한 요소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여겨지고 있다. 또한 체계성이 부족한 통일관련 교육과정, 현실성이 결여된 학교통일 교육의 목표, 다른 매체와의 연계성 부족 등으로 통일에 대해 학생들은 무관심하거나 냉담한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극복하고 학교 통일교육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는 교육주체의 자율성과 통일교육방법의 새로운 수용, 조화원리에 충실한 통일교육, 통일교육의 포괄적 접근방식, 네트워크화, 생활관련 접근, 지역사회의 통일관련센터 재량활동의 적극적 활용 등을 제시할 수 있겠다.

표준공통어 확립 등 '이질극복' 필요성 증대

마. 맺는 말

이상에서 간략하게 살펴본 바와 같이 이질문화 극복을 위한 남북한 교육통합의 방안모색이 필요하다. 특히 동질성 보존과 함양의 방향에서 언어의 이질성으로 인한 남북한 말과 글은 날이 갈수록 틈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남북한간 표준공통어 확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스포츠·음악의 이질화, 음식의 차이, 교육제도와 환경의 차이 등이 벌어지는 만큼 이질화 극복 교육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교육은 한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하다. 통일에 있어서 준비된 통일 내지 교육통합은 진정한 의미의 통일을 한층 앞당기는데 다른 어떤 분야보다 효과가 크다고 할 것이다. 



이용자 정책학 박사 · 명지대 강사

북한에도 한류비람이 분다는 말이 들리지만, 정작 교육관련 교류는 더디기만 한 것이 안타깝다고. 하루 속히 남과 북의 청소년들에게 서로를 이해하는 공감대가 형성되게 도와주는 '교육 교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

첫 공식 대안학교 '한겨레중·고등학교'

'마음의 상처' 치유가 첫 번째 교육목적

반세기 동안 적대적 감정으로 서로 이념과 사상이 다른 교육환경 속에 살아온 새터민(북한이탈주민) 청소년들. 이들이 우리학교의 교육대상이다. 그러기에 우리 학교 앞에는 항상 '새터민 청소년을 위한 최초의 학교' 라는 수식어가 붙어 다닌다. '한겨레중·고등학교'는 매달 하나원을 퇴소하는 무연고 학생과 남한 학교 부적응 학생을 위한 교육시설과 프로그램이 시급하기에 인허가 규정을 겨우 충족하는 최소한의 규모로 지난 3월 개교하였다. 하지만 올해 교육인적자원부의 시설비 지원을 받아 교사동·체육관 및 기숙사동 등의 종합시설을 증축하여 내년 3월부터 140명(중등 60명, 고등 60명, 취업 20명)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





수업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 이외에도 남한 학생들의 몰이해와 이질적 언어 등으로 인한 '따돌림' 등 이들이 넘어야 하는 숭한 통과이레가 기다리고 있다

'교육사각지대'에 대한 대안 마련

통 일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6년 5월 현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 입소한 새터민은 7,190명이고 이중 만14세부터 19세 청소년은 631명으로 해마다 그 수는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들 새터민 청소년의 90%는 탈북 과정에서의 학교 경험부족과 학력 결손 등으로 인해 자기 나이에 맞는 학년에 맞추어 가지 못하고 평균 3년 정도 낮은 학년으로 진학하게 된다. 하지만 이들의 고충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탈북과정에서 겪은 공포심과 장래 남한생활에 대한 막연함, 수업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 외에도 남한 학생들의 몰이해와 차별적 반응, 이질적 언어 등으로 인한 '따돌림' 등 숭한 통과이레가 이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반학교 편입 후 대다수가 중도 탈락(부적응 사례 76.9%)하여 학업의 기회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교육의 사각지대에 몰린 새터민 청소년에 대한 교육의 절박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들을 위한 대안 학교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다.

부지마련에서부터 난관의 연속

정책연구(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학교설립 타당성 연구) 및 관계

기관들의 수차례 협의 후, 2004년 7월 교육인적자원부는 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학교설립(학교법인 전인학원 - 한겨레중·고등학교) 정책을 확정하였다.

이후 학교 부지 물색 과정에서 교육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새터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이유만으로 겪어야 했던 수많은 어려움은 통일을 염원한다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통일에 대해 무지한지와 그들을 받아줄 준비가 부족한 지를 보여주는 한 편의 드라마와 같았다.

그러나 이러한 역경은 이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 민족적 사업인지 다시 각인하는 기회가 되었고, 기운을 한데 모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교사 구성을 위해서는 먼저 대안교육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분들을 모셨다. 현재 과중문 교장은 우리나라 대안교육의 시조인 영산성지고등학교를 설립하여 세계 유네스코에 등록이 되기까지 학교 운영을 담당하였고, 이후 우리나라 최초의 대안중학교인 성지송학중학교를 명문 중학교로 만들었다. 윤도화 교감 역시 일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경주화랑고등학교를 8년 연속 대학진학률 100%의 명문 고등학교로 만든 명실상부한 대안교육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평균

사도 대안교육과 북한 청소년교육이라는 두 가지의 특수성을 만족시켜야 하기에 작년 6월부터 대안교육 아카데미와 3차에 걸친 합숙 연수를 통해 남한에서 처음 실시하는 교육내용을 사전 준비하였다. 또한 핵심 교사 3인을 하나원에 파견하여 학생들의 특성과 교육 내용의 정도를 파악케 하여 실제 학교를 준비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한겨레중·고등학교는 체계적이고 특화된 교육을 통해 일반학교 및 사회 적응력 함양을 위한 디딤돌 학교로 운영된다. 즉 하나원을 퇴소 후 본인의 희망에 의해 입학하여 일정기간 남한 사회에 정착하기 위한 교육을 받고 본인의 희망에 따라 남한 학교로 편입학이 가능하다.

수준별 1대1 교육으로 기초학습 능력배양

탈북과정에서 다년간 학습 결손을 경험한 새터민 청소년들은 학력과 학령의 격차가 커서 일반학교 입학 시 학교 부적응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학교를 다녀야 할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학력 수준은 초등학교 교육부터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겨레중·고등학교는 1년 3학기제 운영으로 학령을 최대한 맞추어줌으로써 동등 학년으로서 자부심을 갖게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기초학력 부진으로 인해 남한 학교 교육 중도이탈이 늘어나고 있음을 감안하여 기초학력 수준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난 3월 한 달 동안 두 차례의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이 기초학습 부진아 판정을 받았다. 암송을 통한 주관식 시험과 판이한 남한의 객관식 시험제도에 학생들이 적응하지 못한 것도 한 원인이지만, 문제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예컨대 '주사위 한 번을 던져 나올 수 있는 짝수가 나올 횟수는?'의 문제에 새터민 학생들이 질문하는 내용은 주사위가 뭐냐는 것이다. 새터민 청소년들에게는 문제 풀이보다 남한 교육과정에서 당연히 하는 개념의 인지가 더 시급한 셈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무학년 무학급을 통한 수준별 교육을 도입하였다. 즉 가능한 한 교사 대 학생의 수를 최소화하여 국어·영어는 4단계, 수학은 9단계로 나누어 수준별 맞춤 교육을 통해 1대1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수업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지만 학생들의 학습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이 선생님들의 일치된 의견이었다. 이에 따라 수학교육을 전공한 행정실장, 교감선생님까지 학생들의 지도에 합세하는 등 학교에서 최대한의 교사인원이 동원되고 있다.

교사가 정서적 안정 도모로 부모역할 특목

다수의 학생들은 탈북하여 입국하기까지 초조와 불안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향을 등지고 국경을 넘을 때, 중국에서 공간에 잡힐까 숨어지낼 때, 다시 일주일



#1. 점심 식사 후

여학생들이 교무실 앞에 모여앉아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다. 공기놀이이다. 그런데 아이들 공기놀이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은 한 사람이 있다. 교감선생님이다. 자신의 딸보다도 어린 아이들과 함께 공기놀이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나이 때문인지 운동신경이 느린데다 손마디가 굵어 실수 연발이다. 그래도 진지함은 학생보다 더하다



#2. 일요일 오후

토요일 외박을 가지 않은 한 학생이 교무실에 들어와 선생님에게 보드게임을 같이 하자고 한다. 한번도 해보지 않은 나는 신기하지만 한데 학생과 선생님은 서로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 부탁도 하고 협박도 해가며 진지하지만 하다. 여기가 교무실인지 놀이공간인지 모르겠다. 이 놀이에 어느새 교감선생님도 끼여있다. 교감선생님은 처음 하는 보드게임이지만 마냥 재미있어 하면서 "이거 하면 치매는 안 걸리겠는데..." 하며 승부대열에 은근 슬쩍 동참한다



나이 스무살임에도 초등과정을 배우는 그는, 그 동안 공부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 받을 기회를 갖지 못했던 것이고 이제야 비로소 학습 받을 기회를 얻은 것뿐이다

밤낮을 걸으며 제3국으로 갈 때, 한국에 와서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을 때 등등 어린 나이에 겪어야 했던 심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하지만 하나원을 나와 남한 사회에 편입되었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상담해 보면 남한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들이 아이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예컨대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 중국에 있는 부모 형제들이 압송되었다는 소식에서 오는 심리적 고통과 스트레스는 단순한 위로로 해결되기에는 너무 크다. 육구5단계설로 유명한 매슬로우^{Maslow}가 말한 바와 같이 아이들의 이러한 심리적 불안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학교라고 하는 제도권의 소속도 큰 의미는 없다 할 것이다.

교사는 만능이 아니다.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학생이 힘들 때 같이 울고, 학생이 기뻐할 때 같이 웃고, 학생이 괴로워 할 때 같이 힘들어한다. 이는 선생님과 학생이 한 기속사에서 같이 기거하면서 부모 역할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교사를 선발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학교 부적응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안교육, 북한 청소년이라는 특수성, 그리고 무연고 청소년들의 부모 역할 등 모든 것을 다 만족시켜야 했기에 한겨레중고등학교 교사가 갖추어야 할 준비사항은 일반학교 교사의 백 배, 천

배보다 더 많았고, 학교 입장에서도 더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

외적으로는 8주간의 교사 아카데미, 12주간의 1차 연수, 보름간의 2차 합숙 연수, 그리고 한 달 동안의 최종 점검을 통해 선발되었지만 내적으로는 새터민 청소년을 교육하는 것을 천직^{천職}으로 알고 오롯한 희생, 봉사 정신으로 모인 분들이다. 아침 7시 30분이면 교감선생님을 비롯하여 교직원 전원이 출근하여 저녁 11시가 넘도록 교무실을 떠날 줄을 모른다. 오죽했으면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고 퇴근 좀 하라고 당부를 할까...

아마도 누가 시켜서 하는 일 같으면 이틀을 넘기지 못할 것이다. 진정 학생들의 위하는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런 선생님들의 마음을 아는지 아이들도 많이 안정을 찾아가며 선생님을 잘 따르고 있다. 부모의 갑작스런 이혼으로 인해 '죽고 싶다'고 했던 00이도 꾸준한 상담을 통해 "선생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라고 도움을 요청하며 같이 뜨거운 눈물을 흘리던 모습에서 우리는 어찌 감사하지 않겠는가?

밤을 빛 삼는 아이들의 학구열

나이 20살인 00이를 데리고 기초학습(초등과정)을 교육하고 있다. 먼 과연 어떤 분위기일까? 분명 본인의 답답함은 물론이겠고 가르치

는 선생님도 안쓰러움에 힘들어 하리라고 상상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 학교에서는 그런 불편해 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 00이는 그 동안 공부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 받을 기회를 갖지 못했던 것이고 이제야 비로소 학습 받을 기회를 얻은 것뿐이다. 자신이 지금 영어 단어를 외우고 기초 수학을 학습하는 것에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교육을 하다보면 '최소한 이 정도는, 최소한 이 정도'는 하고 수준을 낮추어 보지만 과연 그 끝이 어디인지 모르게 내려만 간다. 좌절이 아이들에게서보다 선생님에게서 나타날 정도로 아이들의 학력수준은 낮다. 하지만 배우고자 하는 열의는 남한의 어느 학생 못지않다.

한겨레중·고등학교는 교육인적자원부 인가를 받은 정규학교인 관계로 국가가 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따라서 학교 주요일과를 보면 오전에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역사 등 수준별·단계별 수업이 진행되고, 오후에는 예체능과 특기 적성교육 등 실습 위주의 교육이 진행된다. 이후 저녁시간에는 학습도우미(담임)와 함께 그 날 배운 내용을 복습하는 자기주도 학습이 진행된다. 이후 밤10시 30분에 취침에 들어가는데 학생들이 개인공부할 시간이 너무 없으며 개인공부시간을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기속형 학교인지라 학생들의 취침시간을 정해야 하지만 공부하고자 하는 열의를 꺾을 수 없어 회의를 통해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자율학습 시간을 주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다. 그 동안 장시간 의자에 앉아 공부해 본 일이 없었던 아이들인지라 과연 몇 명이나 남을까 했는데 이것은 기우에 불과했다. 현재 우리 아이들이 23명인데 평균 12명 이상이 연장된 취침시간까지 불을 밝히고 있다.

이렇게 늦은 밤에도 공부하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교무실로 달려온다. 그리고 알 때까지 묻고 또 묻는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야 비로소 공부의 맛을 들인 학생에게 감사하고, 늦은 밤까지 학생들의 학습을 지도해주는 선생님들에게 감사하고, 이런 교육의 여건을 만들어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할 따름이다.

"누가 학생이고 누가 선생님인지 몰라요"

얼마 전 기업체 탐방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모회사 직원들과 학생들이 한 자리에 어울리는 시간을 가졌다.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진행자가 "누가 학생이고 누가 선생님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똑같은 유니폼을 입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학교생활 속에 학생과 교사의 구분을 잊게 하는 일들이 종종 있다.

로비에 둘러앉아 딸보다 어린 아이들과 공기놀이 하시는 교감선생님, 학생과 교무실 바닥에 둘러앉아 보드게임하는 선생님, 학생들과 편을 나누어 족구며 축구를 하는 선생님들. 분명 교사와 학생은 교육자와 피교육자로서 지도하고 지도받는 관계이지만 '수업'이라



는 조건을 벗어나면 얼마든지 친구가 될 수 있고 형·누나가 될 수 있는 것이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이다. 때론 눈물이 나게 혼나며 선생님을 무서워할 줄도 알고, 때론 엉덩이에 X침을 놓는다고 선생님 뒤를 쫓아다니며 웃는 천진난만한 우리 아이들.

이 외에도 학교에서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남한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특히 역사부분)으로 인한 동질성 결여를 극복하기 위해 매주 수요일 문화탐방 체험학습을 통해 남한 사회 적응 및 문화 정체성을 회복해 나가고 있다. 또한 각 연령집단의 심리적 상처의 특성에 맞는 개인별 심리치료와 외부 직업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직업 교육을 통해 적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혼혈이라는 역경을 딛고 미국 프로 풋볼^{NFL} 최우수선수가 된 하인스 위드가 귀국한 후 "혼혈은 그들의 선택이 아니었다. 그들 잘못도 아니다. 자긍심과 희망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남한 사회에 살면서 또 다른 이념적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아이들 또한 그들의 잘못이 아니고, 이 아이들 중 세계적 인물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개유불성^{善有佛性}이라는 말이 있다. 즉 모든 사람, 미물도 부처가 될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다. 학생들의 꿈과 희망은 곧 학교의 존립의 목적이며 목표이다. 우리 새터민 청소년들이 나의 품안, 학교의 권속을 넘어 당당한 사회의 일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한겨레중·고등학교가 꿈꾸는 이상의 교육이다.

오늘도 그 꿈과 희망을 이루기 위해 학생도, 선생님도, 학교도 큰 합성을 외친다.

아자! 아자! 파이팅!! 🙌



전지균 한겨레중고등학교 교무

교무실을 나서며 남이 게시는 선생님들에게 "먼저 들어가서 미안해 요"라며 시계를 보니 새벽 1시더란다. 신록이 물오르는 요즘 바깥쪽 것처럼 새터민 아이들의 하루하루가 너무도 다르게 해맑아 지는 모습에 선생님 모두는 퇴근시간을 잃은 지 오래라고

‘눈높이’ 맞춤형교재 개발 One Step 시동!

교민 대상 통일교육교재 개발을 위한 미주 탐방

통일부 통일교육원에서는 그동안 일반국민과 초청교육생만을 대상으로 실시해 오던 통일교육의 외연 확대를 위해 2006년도 주요 신규사업중 하나로 ‘재외동포 통일교육 교재개발’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그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1월 미국(New York · Los Angeles · San Francisco)을 방문, 현지 교육단체 대표들과 교재개발에 관한 실무협의를 가졌다.

1. 뉴욕지역

1월 21일 ‘The Palisadium-Daewon’에서 ‘재미한인학교협의회’ NAKS와 제1차 실무협의 간담회가 있었다. 손창현 NAKS 전국연합회장, 김정근 연합부회장, 이승은 동북부지역협의회 회장 등 NAKS측 주요 임원진이 참석하였다.

회의 주요내용으로는, 동포 2·3세들을 직접 교육시키는 한글학교 교장 등 현지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재개발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과 교재 내용구성은 한글과 영어를 병용하는 형태로 구성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원고는 아주 쉽고 재미있게 기술해 주어야 하며, 학생들은 대부분 남북한에 대해 막연한 호기심과 적대감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남한과 북한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관점을 잘 정리해 줄 필요가 있고, 분단의 현장을 NAKS회원(한글학교 교사 등)들이 먼저 탐방토록 하여 생생한 체험담을 학생들에게 전하도록 학습효과를 높여 나가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1차 실무협의를 이어 저녁에는 NAKS 갈보리 무궁화 한국학교(뉴저지 소재)에서 회원·교사 대상 특강(연사: 강석승 통일교육원 연구개발팀장)이 있었다. 최근 북한의 변화와 남북한 관계 실상에 대한 강연이후, 이어진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 내내 통일과 남북관계에 대해 참석자들은 높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그리고 1월 23일에는 New York 총영사관 방문이 있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파견되어 있는 이선복 교육원장은 “재미동포 중 통일 문제에 관심 있는 주 계층은 장년층이며, 청소년층은 무관심하다”며 “통일교육의 연령별 대상은 초등학생, 청소년, 성인 등으로 분류하되, 소수 그룹의 인기를 얻기 위한 교육이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2. LA지역

1월 24일 LA한국교육원 방문이 있었다. 정태현 원장, 구자문 부원장, 김상재 교학실장 등과의 면담에서는 재외동포교재 개발과 관련하여 현지 실태 등에 관한 여러 가지 의견교환이 있었다.

먼저 LA지역의 ‘미주한국학교연합회’는 교포들에게 한글만을 가르치는 단순한 한글학교가 아니라 한국의 전통과 문화, 역사까지도 전파, 교육시키는 대표적인 교육단체로서 2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NAKS가 남가주를 제외한 여타 지역에 전국적인 연합체를 가지고 있는 조직인데 반해, ‘미주한국학교연합회’는 LA와 그 주변 지역 교포들을 대상으로 조직된 NAKS에 버금가는 단체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 이들 두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재를 개발해야 활용도가 높아질 것임도 강조하였다.

교재개발은 LA지역을 중심으로 한 남가주 지역 동포(대략 100만명, 공식적으로는 70만명)를 대상으로 쉽고 재미있게 내용을 구성하

되, 우선적으로는 수업시간에 바로 투입이 가능한 ‘교안’을 만들어 주면 job이 따로 있는 교사들에게 유용할 것이며, 교재는 지루하지 않고 짧은 시간에 주요 내용을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형식을 갖추어야 함을 강조했다.

LA 교육원 방문에 이어서 ‘남가주한국학교협의회’ 임철현 전 부회장 등 임원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최근 남북관계 진전상, 특히 개성공단의 영향 등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며, 아직도 ‘피주기’ 등의 내용이 방송에 나오는 것에 대한 대책으로 적절한 해설서의 보급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과 교재는 직접 학생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쉬운 말로 구성하되, feeling으로 전달될 수 있게 visual화가 필요하다는 것 등의 견해가 제기되었다.

LA는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교민들이 많이 상주하고 있고, LA 내 82개 언어 중 한국어가 톱3안에 들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미국 내 통일교육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충분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어는 '95년부터 미국의 대학입학 시험에 선택과목SAT II으로 채택되었다)

3. 샌프란시스코 지역


끝으로 1월 26일에는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총영사관을 방문하여 정상기 총영사, 천인필 부총영사, 노희방 교육원장 등과 면담을 가졌다. 동포들의 눈높이에 맞게 교재를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이민 2~3세대의 경우 영어로 구성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과 단순 번역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문제의식을 가지고 쓸 수 있도록 논리 전개를 위한 기초지식과 정보를 제공해주는 형식이 바람직하다는 자문도 있었다. 1.5세대는 영어와 한글을 병행하지만 2세대는 거의 한글을 모른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 방식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하였다. 북한의 실상과 관련된 내용은 딱딱한 논문식 보다는 만화, 그림, 사진 등을 삽입하여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제작해야 한다는 것과 동포들의 세대별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전문가에게 용역위촉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총영사관 방문에 이어 저녁에는 재미한인학교협의회와 제2차 실무협의 간담회(북가주지역협의회 회장단 모임)가 개최되었다. ‘Seoul Garden’에서 개최된 회의에는 장동구 북가주한국학교협의회 회장, 김해서 NAKS 통일교육위원장, 주신숙 북가주한국학교협의회 총무, 정태현 전 북가주한국학교협의회 회장 등 NAKS측과 박영규 샌프란시스코지역 ‘평통’ 부간사, 노희방 교육원장 등이 참석하였다.

통일교육원은 현지 출장과과정에서 참석자들의 재외동포 교재개발에 관한 의견을 종합하여 15분 정도의 영상교재(DVD)로 하되, 영어와 한국어를 병용(한국어 해설, 영문 자막) 하는 것으로 통일교육교재 발간형태에 대해 잠정결론을 내렸으며, 금번 출장결과를 토대로

재미지역의 한글학교는?

재외동포 교육기관인 재미지역의 한글학교는 ‘재외동포법’에 의해 임의로 구성된 단체로서 주로 교회를 중심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으며 교회의 형편에 따라 가변적이다. 지난해 3월 현재 미국에 있는 한글학교는 총225개(뉴욕 123개, 펜실베이니아 32개, 델라웨어·코네티컷 7개, 뉴저지 63개)이며, 교원 수는 1,944명 학생수는 12,797명이다.(이 중 초등학생이 6,049명으로 과반수 차지)

재미동포 대상 통일교육교재 제작에 관한 집필방향, 수록 콘텐츠 개발 등 구체적 추진방향을 수립한 후 본격적인 교재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다. 

양상원 통일부 통일교육원 연구개발팀



향후 재외동포 교육 활성화 및 교재개발 Network 공조 약속

미국 방문기간(1월 21일~28일) 중 해당지역 교육단체 대표들과 협의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미동포 2·3세대들의 눈높이에 맞는 통일교육 교재를 금년 중 개발, 보급한다는 것이다. 즉, 한국어 구사력을 감안하여 이해하기 쉽고 흥미 있는 영상교재로 제작하기로 하였다.

둘째, 콘텐츠 구성은 영어와 한국어를 병용(한국어 해설, 영어 자막)하여 DVD 형태로 제작하되, 급급적 내용이 지루하지 않도록 10~15분 내외로 하고 한반도 분단과정, 남북관계 현실, 통일비전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셋째, 출장결과를 토대로 세부 추진방향을 확정된 후 인터넷 공모를 통해 본격적으로 개발에 착수키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재미한인학교협의회·미주한국학교연합회 등과의 사전협의를 충분히 거치는 등의 상호 업무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이를 계기로 향후 재외동포 교육 활성화 및 교재개발 Network를 더욱 긴밀히 구축하도록 하였다.



‘하나’ 라는 감정

하나원을 다녀와서



“왜, 도대체 왜 우리는 멀고도 가까운 북녘 땅을 바라보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것일까?”

얼마 전 도덕시간이었다. 평소 도덕시간처럼 선생님께서는 교과서 본문을 읽고 계셨다. 한 단락을 읽고 나서였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선생님께서 노래를 부르고 계셨다. 통일을 소망하는 노래인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었다. 선생님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반 친구들은 놀라서 수군댔다.

“갑자기 왜 저러서?”

“글쎄, 갑자기 감정이 북받치신 걸까?”

노래를 몇 단락 부르던 선생님께서 노래를 멈추고 우리를 가만히 바라보셨다. 그리고 반 친구들과 한 명씩 눈을 맞추셨다. 그 시간 우리는 통일에 대해 우리들이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 배우고 있었다. 이윽고 선생님께서 말씀을 이으셨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한 명도 없네. 내가 왜 이 노래를 불렀는지 아는 사람?”

교실은 조용했다.

“북한 아이들은 이 노래를 들으면 눈물을 흘린다고 한다. 그래서 너희들은 어떤지 궁금해서 불러보았어.”

그리고 다시 수업이 진행되었다. 순간 나의 머릿속에 여러가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다. ‘정말 그 노래를 들으면 북한 아이들은 눈물을 흘릴까? 왜 이 노래를 들으면 여러가지 감정들이 복합되는 걸까?’

사실 이런 일이 도덕시간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대중매체를 통해서도 이런 경우를 많이 보았다. 북한 여배우와 남한 여가수가 ‘아리랑’을 들으면서 CF를 찍으며 눈시울을 적신 이야기, 많은 가수들이 통일에 대한 노래를 한 소절씩 번갈아 부르며 눈물을 흘린 이야기 등...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계속 비슷한 생각들이 스쳐지나갔다. ‘왜, 도대체 왜 우리는 멀고도 가까운 북녘 땅을 바라보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것일까?’

그리고 북한과 전혀 관계가 없는 나마저도 그런 슬프고도 뜨거운 벅차오르는 감정에 휩쓸리는 것이 어색하고 이상했다. 내게 TV에서처럼 잠시 만나서 부둥켜안고 서로 맺혀있던 감정을 토해낼 이산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몇몇 친구들처럼 북녘에 그리운 고향

땅을 두고 쓸쓸해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신 것도 아니었다.

사실 이곳 하나원에 오게 된 동기도 친구에게 억지로 이끌려 와서 이지 다른 친구들처럼 특별히 북한에 관심이 많고 더 알고 싶어서가 아니었다. 하지만 이곳 하나원에 와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게 되었다. 교과서에 나온 딱딱한 내용 대신 토론을 통해 실제로 북한친구들의 생활과 북한친구들이 생각하는 것도 듣게 되었다. 토론이 진행될 수록 생전 처음 본 북한 친구들이 우리와 같은 언어를 쓰고 있는 같은 형제, 자매인 것을 느꼈고, 궁금한 것도 더욱 많아졌다. 그리고 생각했다. 내가 북한에 관심이 없었던 것도, 내가 북한에 관심이 많아지는 것도 서로의 문화를 잘 몰라서 그랬다는 것을...

결국 우리 서로 말로만 통일, 통일하면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만약 이런 상태로 통일이 된다면 새터민들이 남한에 와서 느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서로의 사고방식과 문화 차이에 많이 놀라고, 서로를 이해함이 없이 선입견을 두고 바라볼지 모른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는 통일을 앞당기고 통일 후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서로의 문화와 생각을 조금씩 배워가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 서로가 마음을 열고 가까운 것부터 이해하고 감싸주며 통일이라는 계단을 하나, 하나 밟아나가면 이 뜨거움이 느껴지는 단어가 튼튼하게 다가올 것이다. 오늘처럼 북한친구들과 남한친구들이 함께 소리내어 환하게 웃을 수 있는 날이 빨리 다가오길 바란다. ☺



김현경 은광여고 2학년

얼마 전 외할아버지께서는 버스를 타고 육로로 금강산을 다녀오셨고, 백화점에선 개성에서 만들어진 상품이 팔린다는 뉴스를 보고 있다면 내일이면 더 좋은 ‘통일소식’이 들려 올 것 같라며 엄마 아빠, 그리고 동생과 함께 자동차를 타고 백두산으로 달려가는 상상을 해본다고

* 이 원고는 지난해 11월 ‘통일글짓기대회’에서 통일부장관상을 수상한 작품을 수상자 본인이 일부 개작한 것임



이젠 한 인격체의 완성을 위해 ‘네 번째’ 고난을 건너고 있어요

‘국경을 세 번 건넌 여자’의 탈북작가 최진이



최진이씨는 ‘입격정’의 작가 벽초 홍명희의 손자인 ‘황진이’의 작가 홍석중(북한 작가로는 최초로 2004년 만해문학상 수상자)으로부터 “북한 문학계를 뒤바꿔 놓을 인물”이라는 극찬을 받는 등 당시 총망 받던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시 분과소속으로 활동하던 시인이었으나 돌연 평양 추방령을 받게 된다.

4월 7일, 카 오디오에서 남도 벚꽃축제가 한창이라는 花信을 들으며, 인터뷰 스케줄도 안 맞는데다, 본인의 석사 논문 준비로 경황이 없으니 약식 인터뷰(?)를 하자고 제안한 최진이 작가에게 약속한 인터뷰 시간(오후 2시)에 맞춰 전화를 걸었다.

〈남한정착 과정에 대해서〉

본인의 남한 정착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과 시기는?

중국에서 남한으로 올 때 '10년간 공부하자'고 마음먹고 왔는데, "그 나이에 무슨 공부냐? 돈을 벌어야지"라는 주위 시선이 견디기 어려웠다. 실제로 하나원에서 나온 직후 2개월, 즉 돈을 벌자고 마음을 정해보았던 그 시간은 참으로 이겨내기 힘들었던 '고통' 그 자체였다.

본인이 만약 새터민 관련 정책 입안자라면 남한주민과 그들을 위해 이것만은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한 마디로 말해서 '심리상담 제도'의 질적 확충이다. 물론 대부분의 새터민들에게 심리상담을 들먹이면 "날 어떻게 보는 거냐?", "내가 정신병자인줄 아냐?"며 심리상담에 대해 거부반응을 나타내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내 생각으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다. 하나원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직업면담, 심리면담으로는 그들의 병든 심령을 치유할 수도,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열게 할 수도 없다.

자신이 새터민(북한이탈주민)인 입장에서, 현재 이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앞서 말한 심리상담 확충과 연계되는 말인데 미국에서 시행하는 현실적인 난민교육 프로그램에 버금갈만한, 새터민들의 남한 환경적응을 돕고 심리 안정에 구체적 방안이 되는 대화 채널 프로그램이 매우 아쉽다. 지금 현실은 대화단절의 골이 너무 깊다. 새터민들은 통제위주의, 게다가 살인적인 식량난까지 겹친 북한체제에서 스스로 비전을 세우고 내면을 제어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시간과 기회들을 전혀 갖지 못했다. 그러니 그들은 임시 보호막이었던 하나원 밖으로 내보내지면 엄청나게 당황하고 방황하게 된다. 남한사회는 새터민들이 이러한 북한체제 속에서 쫓겨 단고 살았던 자기 '내부의 목소리'를 스스로 부끄럼 없이 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도움부터 우선적으로 줘야 한다. 동시에 타인을 존중하고 예의와 겸손성을 더불어 갖추도록

탈북작가 최진이는?

평양에서 태어나(1959년) 북한 월간 '조선문학'에 시를 발표하는 등 조선작가동맹 시인으로 활동하던 중, 평양 추방령(1998년)을 받고 그해 여름 탈북, 그러나 다시 두만강을 건너가 아이들을 업고 나오는 등 온갖 역경 끝에 1999년 11월 한국 땅을 밟는다. 현재 이화여대 대학원에서 여성학을 전공하고 있는 그녀는 조만간 북한 작가동맹시절 후배 시인이었던 '림형미'를 통해 '식량난시기 '조선문학' 지에 나타난 북한 여성시인들의 여성주제 시 쓰기 방식 연구'로 석사논문을 마무리 할 예정이라 한다



남에서 만난 북의 천재시인 김철의 형 김환화백(왼쪽에서 세번째)

록 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그들이 이 과정을 별다른 심리적 부담 없이 목적의식적으로 거치도록 해야 한다. 준비가 잘 된 이런 장기 프로그램을 충실하게 통과하는 속에 새터민들은 시장경제 사회의 합리적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인격과 실력을 하나하나 쌓아갈 수 있는 것이다. (목소리가 점차 격양되어 간다) 그러기 위해선 역지사지란 말도 있듯이 남한사람들이 '자기가 원해서 북한에서 태어난 것이 아닌' 그들의 입장에 서서 새터민들을 바라보려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새터민들 중 특히 남성들의 문화적 상실에서 오는 공허감은 생각보다 아주 심각할 정도이다. 차별적이고 위계적인 남한사회에서 극도로 위축된 그들이 무엇보다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추후 남한이 치러야 할 '통일의 전 사회적 비용' 손실을 사전에 막거나, 최소화하는 방도가 될 수 있다.

아이를 키우는 한 가정의 주부로서 생활 속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새터민들의 남한정착 돕기 방법이 있다면?

(아까와는 달리 가볍게 웃는 소리가 들려오는 속에 입가의 미소가 보이는 듯 하다) 글썽... 내가 사는 아파트의 쓰레기 모으는 곳을 보면서 느낀 건데, 아직은 거뜬히 쓸 수 있는 주방기구나 생활가구를 그냥 버린 것들이 많다. 재활용센터처럼 이런 것을 모아서 하나원을 나오는 새터민들에게 나누어주면 어떨까? 새 가구는 금전안목이 형성되고 경제자립도가 어느 정도 될 때 구입케 하고 말이다. 그러면 새터민들의 과도한 씀씀이를 사전에 막을 수 있고 결국 이것은 새터민들을 경제적으로 보호하는 한 방법이 되는게 아닌가?

〈북한생활과 탈북 관련〉

평양 추방령을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

결혼한 지 3년째이던 1998년 5월, 나는 함경북도 청진으로 남편, 아들과 함께 추방당했다. 이유는? '가난'이 그 본질이다. 당시 식량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평양시민조차 식량배급이 여의치 않게 되자 북한정부는 평양시 거주민 중 일부를 추방하게 되는데 그 식량난으



로 인한 추방자 부류에 우리 가족이 포함된 것이다. 명분은 '전처 아들의 건전치 못한 생활' 탓이었다.

평양에서 추방된 이후 북한에서의 생활은 어떠했는가?

남편은 전처 아들과 청진 외곽에 있는 자기 누이집에 들어가 살았다. 청진역사에 숙소를 정한 나는 남편에게 두 살짜리 아들을 맡기고 내 자신이 설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역사의 딱딱한 나무의자에 기대여 쪽잠을 자고 시장에 나가 옷가지를 팔아 이들에 한 끼씩 주린 배를 채우며 '홀로서기'를 위해 몸부림 쳤다. 그때 내 눈에 비쳐진 북한 실상은 죽음보다 더 참혹한 기아와 부조리가 판을 치는 아버지환의 생지옥이었다. 그래서 1998년 그 해 여름 나는 탈북을 결심했다.

1998년 여름, 탈북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북으로 왜 다시 들어갔는가?

아들 때문이다. 목숨을 걸고 두만강을 건너 탈북에 성공했지만, 북에 남겨두고 온 아들 생각에 밤낮으로 뼈가 저렸다. (울음이 났 웃음을 한번 웃더니, 목소리 톤을 한 단계 낮춘다) 더 자세한 것은 내가 쓴 책을 보라. 더욱이 탈북 후 연변에서 국적 없는 탈북여성으로의 내 모습이 적나라하게 나온다.

북한에서 태어나 성장기를 거치는 동안 느꼈던 북한체제는 어떠했는가?

지금 생각해봐도 같은 결론이지만, 그 어린 나이에도 내 눈에 비친 북한사회의 김일성·김정일 우상화풍조는 너무 심했다. 독재체제 유지를 위해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우상화'의 무쇠방망이 하나로 덮으려는 것이 내 눈에 뵈히 보였다. 열심히 공부하여 학문을 갈고 닦아야 할 학생들을 공사다, 건설이다 하면서 '노력동원'의 대상으로만 취급하는 현실은 나를 더욱더 회의케 하였다.

〈현재의 남한생활에 대해〉

아들은 현재 몇 살이나?

11살이다. 양천구의 모 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중이다.



아들을 키우고, 교육시키는 데 있어서 힘든 경우는?

남한의 과열된 교육풍토가 아직까지 낯설고 이해가 안 간다. '사람을 만드는 교육'이 아니라 '경쟁에서 이기는 교육'을 과반수가 좇고 있다. 경쟁구도로 짜여진 자본주의에서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긴 하지만 '무모할 정도'의 이 분위기는 수 많은 문제를 낳을 소지가 있다.

학교 정규학습 외 아들에게 시키는 과외과목은 있는가?

학원은 보내지 않는다. 학습지는 한문만 시켰는데 4급까지의 과정을 전부 마쳤다. 주1회 베를린 음대를 나온 선생님을 통해 기타를 가르치고 있다. 영어와 한문을 얼마 전부터 내가 직접 가르치는데 아들이 잘 따라줘서 고마울 뿐이다.

주위의 말처럼 '공부가 아니라 돈을 벌어야 하는데' 지금 대학원을 다니니 가계에 고충이 많지 않은지?

맞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다. 공부를 하는 내 목표가 생의 지향점이고, 내 아들이 버팀목이기에 견딜만하다. 그리고 주위에서 여러모로 도움을 주시고 있기에 그 분들에게 보답을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한 인격체의 완성을 위해 '네 번째' 고난의 강을 건너고 있다고 본다. 지켜봐라. 꼭 '네 번째 도하'도 성공할 것이다. ☺



허윤 통일교육소식 편집위원 · (주)경향C&L 총괄팀장
'탈북자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봐 달라'는 최진이님의 말에서 그들을 항상 '먼 나라 사람'들이기만을 비웃던 우리네의 '무관심증'을 우선 치유해야 하지 않을까 반성해본다

남북경협은

'우리 미래'에 대한 투자



1. 평양의 컴퓨터교육센터 설립과 운영

2000년 9월 평양에 컴퓨터 교육센터를 설립하면서 내가 가졌던 꿈과 희망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었다. 북한에 처음 갔을 때만해도 우리가 그렇게 빨리 컴퓨터교육센터를 평양에 설립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었다.

돌이켜보면 당시 우리의 협상파트너인 민경련측이 우리가 제안한 사업계획을 쉽게 받아들였던 데에는 김정일의 소위 '단번도약론'이 작용했던 것 같다. 즉 북측은 컴퓨터에 대한 지식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북측 경제에 새로운 전기를 부여 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사업승인 신청 후 불과 2개월 만에 북측에서 승인을 받았다. 우리 정부로부터는 소프트웨어 입가공으로 사업허가를 쉽게 취득할 수 있었다. 북측은 민경련 사무소 일부를 비워, 2층 300여평 건물을 교육 장소로 제공하고, 우리는 강사와 프로그램, 기자재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프로그램과 기자재를 보내는 일은 다른 준비작업에 비하면 쉬웠다. 제일 큰 어려움은 북에 파견할 강사를 구하는 일이었다. 인터넷은 물론 어떤 엔터테인먼트도 없고 호텔과 강의실을 오가야 하는 단조로운 생활에 대한 거부감도 있었겠지만, 그때까지도 막연히 적개심의 대상으로만 여겨지던 북한의 한 북판, 평양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게 결심을 어렵게 한 모양이다. 결국 당시 북한 사업을 위해 설립한 연구소의 사원 중에서 2명을 차출하였는데, 그 중 29세의 머리를 길게 땅아 내린 '꽂지머리' 총각 강사는 학생들로부터 매우 인기가 좋았다.

1차로 50명의 교육생을 배정 받았는데, 이들은 모두 북에서 일류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로 학습능력이 매우 우수했다. 불과 2~3개월 만에 이들의 컴퓨터 능력은 놀라울 정도로 향상되었으며, 6개월 후 부터는 자체 교육인력 중 우수한 인력으로 대부분의 강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고초는 사실상 전무한 북측의 산업인프라가 빚어내는 해프닝이었다. (아니, 그것은 산업인프라라는 말보다는 업무용 전기·수도 공급능력의 절대 부족이라고 표현을 해야 할 것 같다)

10월이 지나면서 4시간을 충전할 수 있는 UPS와 일정한 전력을 유지시킬 수 있는 AVR은 소용이 없어졌다. 수시로 전력 공급이 중단 되어 UPS는 충전 될 수 있는 시간도 없었고 220볼트를 유지해야 하는 전력은 150볼트를 유지하기도 어려웠다. 결국 우리는 교육센터 1층에 소형 가솔린 발전기를 설치하고 교육시간 내내 달달 돌려대며 강의를 할 수밖에 없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난방 또한 제대로 되지 않아 학생들은 모두 털장갑을 낀 채로 컴퓨터 자판을 치고 강사는 손을 불며 강의를 해야 했다.

2. 고려정보산업단지 개발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던 북한의 컴퓨터교육센터 사업은 곧 한계에 부딪혔다. 2~3명이 머무는 호텔 체류비용과 사업비로 월 수 천 만원을 지출해야 했으며, 업무협의를 위해 서울과 평양을 수시로 오가며 걸리는 시간 또한 만만치 않은 난관이었다. 결국 장기체류 문제 해결과 함께 여러 기업이 공동사업을 추진 할 수 있는 방식을 마련하기 위해 '고려정보산업단지'라는 부지 2만 6천평·건평 5천평 규모의 IT 산업단지 건설을 평양에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하기로 하였다.

그 때는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 상해 푸둥지역을 방문(2001.1)하면서 '신사고론'을 주장한 시기라서 북측과는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산업단지 건설을 위한 첫 삽을 뜰 수 있었다. 물론 이 과정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북측 노동자들은 철골구조물 건축경험이 없었기에 교육과 실습을 동시에 해야 했다.

그들이 건설을 하는 방식은 우리가 70~80년대 이전에 사용하던 방법이었기에 서로의 의견이 불일치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다. 그러나 몇 번의 시범을 거치며 우리 기술자는 단번에 사업의 총괄 책임자가 될 수 있었다.

고려산업단지를 개발하면서는 북측의 기계기술 수준을 체험할 수 있었는데, 생각보다 열악한 것 같았다. 한 가지 예로 이곳에서는 흔한 부품이나 부속도 떨어지지만 하면, 공급이 될 때까지 20일, 어떤 때는 2~3개월이 걸리는 일이 흔하였다. 한번은 우리가 가지고 들어간 승용차의 유리가 사고로 깨진 적이 있었다. 승용차를 세워 놓은 채 몇 달인가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며 '우리가 북한의

경제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였다.

3. 처음부터 같이 시작해야만 하는 일

평양에서 고려산업단지 개발을 구상하는 동시에 나는 2001년 말 서울에서 북한 사업에 관심이 있는 기업대표 30여 명의 발기인을 모아 '남북경제협력진흥원'을 설립하였다. 설립동기는 2000년 평양에 컴퓨터교육센터를 설립하고 나서부터 대북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얻은 크고 작은 경험에서 나는 한 두 기업의 힘만으로 대북사업을 한다는 것은 너무 어렵고 어떤 면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북녘의 어린이를 생각하는 음악회'를 통해 북녘 아이들에게 보낼 15만 자루의 캐릭터 연필을 모았던 일은 북측 아이들에게 '꿈'을 주는 뜻 깊은 일이었다

비록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대북사업은 위험이 많은 사업이다. 정치적인 이유로 사업을 중지시키는 등 북측의 일방적이고 경직된 사업 태도나 국민들의 대북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모두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보다는 여럿이, 정부보다는 민간이 경제협력을 주도해야만 대북사업은 정치적 외풍을 덜 타고 안정적인 기반 하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그리고 대북사업이 잘 되어야만 우리도 이익을 얻고, 북한 주민들도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다.

(사)남북경제협력진흥원은 비록 기업인들의 모임이지만 대북사업 외에도 북한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업을 몇 가지 꾸려오고 있다. 그 중 가장 보람을 느낀 것은 2004년 3월에 개최한 '북녘 어린이를 생각하는 음악회'를 연 것이다.

북으로 연필을 보낸다. 어떤 이들은 웃을지 모른다. 먹는 것도 아니고 몇 푼 되지도 않는 연필을 보내는 것이 우스꽝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북측의 어린이들에게 '꿈'을 심어주었기에, 지금도 보람 있는 일로 기억된다. 2004년 이른 봄 Astra Corea Opera와 함께 '북녘의 어린이를 생각하는 음악회'를 열고 150여 명의 회원들이 시청 앞 프라자 호텔에 모여 아이들에게 보낼 15만 자루의 캐릭터 연필을 모았다.

4. 또 한번의 위기

어렵게 명맥을 이으며 완공을 기다리던 고려산업단지 건설공사는 2004년 여름 다시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다. 2004년 7월 탈북자 470여 명이 대량 입국하면서 남북관계가 초긴장 상태로 경직되었고, 북측은 남한 사람들의 방북을 전면 중단시켰다. 당시 고려정보기술



2007년 4월이면 평양지식산업복합단지에서 남측 기업과 연구소가 북측의 기업과 공동으로 연구하며 남북한 공동 사업추진이 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남북경협 시스템이 가동된다

산업단지는 4개동 2천평의 공사를 마무리하고 추가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사업의 전면중단이라는 위기를 피할 길이 없어 보였다.

북측에 기업인 방북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북에서는 방법이 없다고만했다. 우리 정부도 기다려보자는 말만 되풀이하며 거의 1년이 흘렀다. 기다리면 언젠가는 문제가 해결되지만 사업은 시간이 가면 그만큼 아무도 책임져주지 않는 손실이 발생하기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었다. 결국 고려정보기술산업단지를 당시 60~70% 건축공정을 보이고 있는 평양과학기술대학에 합병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고려산업단지는 평양과학기술대학 부설 평양 지식산업복합단지로서 태어나게 된 것이다.

5. 평양과학기술대학에 합병

평양과학기술대학은 애초 북한이 (사)동북아교육문화협력재단에 2001년 5월에 대학설립을 요청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미 연변과학기술대학의 성공경험을 축적한 김진경 총장을 중심으로, 대동강 건너 불과 5분거리(개성으로 향하는 고속도로 부근)에 지난 3년간 온 힘을 다해 건설하고 있는 33만평 부지에 2만여 평의 건물이 오는 10월이면 완공된다.

2007년 4월이면 우리가 고대하던 평양과학기술대학이 문을 열고 그 곳의 평양지식산업복합단지에서 남측 기업과 연구소가 북측의 기업과 공동으로 연구하며 남북한 공동 사업추진이 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남북경협 시스템이 가동된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는, 꿈에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이제 우리의 눈앞에 현실로 증명될 수 있는 날이 멀지 않다.

(사)남북경협진흥원은 2006년 2월 중국 연변과학기술대학 내에도 중국 현지인력과 북한인력 교육, 그리고 한중 합작사업을 위한 동북 아산학연구센터를 설립하였다. 이곳은 기술 인력의 교육 및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교육장과 사무실을 이미 갖추었으며 남북협력을 위한 북측 사무소가 개설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6. 맺음말(우리의 미래를 위한 선택)

적어도 나는 남북관계를 개선시킨 계기, 즉 김정일 위원장이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을 한 배경에는 1990년대 북측의 경제위기가 있다고 본다. '인간은 빵만으론 살 수 없다'고 흔히 말하지만 빵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게 또한 인간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 국민 중 많은 이들이 "불경기라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통일은 왜 합니까? 왜 북한을 도와줘야 합니까?" 라고 말한다. 이런 말을 들을 때면 중국을 보라고 말하고 싶다. 중국은 이미 수 차례 김정일을 비롯한 북한의 고위 관료를 초청하였으며, 평양에 현대화된 유리공장을 건설하여 기증하는 등 북한에 대한 원조에 매우 적극적이다. 실제로 현재 북한 생필품의 80~90%가 중국산이다.

중국이 우리보다 더 안정적이며 좋은 프로그램으로 북한을 개방사회로 이끄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중국을 비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중국의 북한에 대한 독점적 주도권을 방관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라고 본다. 현재의 북한을 돕는 것은 미래의 우리를 위한 투자인 것이다. 🌐



임원근 (사)남북경제협력진흥원 원장
 중추역에 언제 달을 지도 알 수 없는 열차를 탄 지 어느덧 7년이라며 그 래도 열차를 타고 가다보면 꽃이 만개한 창 밖 봄을 볼 수 있듯이 지금의 북한 열차가 기관차이지만 전동차로, 그리고 KTX가 북녘을 지나 중국·유럽으로 내달리는 날이 꼭 올 것으로 믿는다고

‘민족사술타 시기 망라’ 국내 첫 전시

오는 10월까지 북한 국보급 문화재 특별전

북한이 자랑하는 민족사 전 시기를 포괄하는 국보급 문화재 90여점이 이달 12일부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막한 ‘북녘의 문화유산-평양에서 온 국보들’ 특별전을 통해 선보이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이건무)과 북한의 조선중앙력사박물관(관장 김송현)이 남북 박물관 간의 첫 번째 교류사업 일환으로 지난 3월 24일 합의하여 이뤄진 이번 특별전은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북한 문화재가 총체적으로 전시된다는 데 의미가 크다. 이번에 전시될

작품 대부분은 광복 후 남한에서 아직 한번도 공개 전시되지 않은 국보급 문화재들로서, 일부 작품은 사진으로도 제대로 공개된 적이 없는 것들이다. 전시 문화재는 지난 5월초 북측에서 남측으로 인계되었으며, 한 달 여의 전시 준비 작업을 거쳐, 8월 16일까지 서울의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전시되며 이어 8월 28일부터 10월 26일까지 국립대구박물관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

편집자주

〈전시 예정 주요 문화재〉

- 한반도에서 가장 연대가 올라가는 구석기와 청동기인 ‘상원 검은모루 출토 구석기’와 ‘신암리 출토 청동칼’
- 우리나라 최고^{국보}의 악기인 ‘서포항 출토 뼈피리’, 고구려의 중요한 금석문인 ‘고구려 평양성 석각’ 등의 고고 역사품들
- 미술품으로는 1993년 개성 태조 왕건릉에서 출토된 ‘고려 태조 왕건 청동상’을 비롯하여 ‘발해 치미’, ‘신계사 향완’, ‘불일사 오층 석탑 출토 금동탑’, ‘관음사 관음보살좌상’ 등의 건축과 불교 공예품들, ‘심사정 화조도’, ‘김홍도 신선도’, ‘신윤복 소나무^{의정}’, ‘정선 웅천파도도^{웅천파도}’ 등의 회화 명품들



북한 국보급 주요 문화재 지상 갤러리



□ 서포항 출토 뼈피리(길이 17.3cm 직경 1cm) 함경북도 선봉군(舊 웅기군) 굴포리 서포항동에서 1961년 발굴되었다. 조류의 다리뼈를 잘라서 만들었는데, 구멍이 13개 확인된다. 1호 무덤에서 북쪽으로 3m지점의 청동기시대 제1기층에서 출토되었는데, 대체로 기원전 2000년기 후반기로 편년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최고*의 악기이다



□ 개성 관음사 관음보살좌상(높이 120cm) 황해북도 개성시 박연리 관음사의 관음굴에 있던 2기의 보살좌상 중 한 점이다. 몸체의 균형이 바르고 차림새가 화려하며 조각 솜씨가 섬세하면서 정교하다. 고려 석조미술의 걸작이다



□ 고려 태조 왕건 청동상(높이 143.5cm) 1993년 고려 태조릉인 현릉*의 보수 공사 중, 봉분 북쪽 약 5m 지점에서 출토되었다. 이 동상은 고려 시대 봉은사* 태조진전*에 안치되었다가 고려가 망하면서 경기도 연천의 작은 사찰로 옮겨진 후, 세종 11년에 출토 지점에 매납되었다. 재료나 양식으로 보아 10세기 말~11세기초 작품으로 추정된다



□ 신계사 향완(1352년 높이 45cm) 고려 은입사 향완 가운데 상당히 큰 편인 향로로, 은입사로 새겨진 명문이 있어 1352년이라는 정확한 연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향완이다. 넓은 전 밑으로 직각으로 우묵한 사발 형태의 몸체가 이어지고 아래에는 나팔꼴 굽다리가 부착되었다. 전과 몸체, 받침 등 각 부분에 구름무늬, 연꽃무늬, 넝쿨무늬 등 다양한 문양들을 섬세한 은입사기법으로 빈틈없이 꾸며 향로의 질은 비탕색에 은색의 문양이 조화를 이루면서 고상한 아름다움을 전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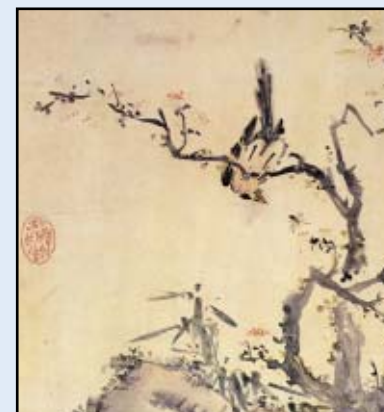
□ 신암리 출토 청동칼(길이 18.6cm) 평안북도 용천군 신암리유적 제3지점2문화층에서 1965년 발굴 조사되었다. 청동칼은 자루 끝에 둥근 고리가 달려 있고, 등이 약간 휜 채 한쪽에 날이 있다. 현재까지 한반도에서 출토된 청동기 중 연대가 가장 올라간다



□ 김홍도, '신선도' (32×42cm, 견본담채) 조선 후기 대표적인 화가 김홍도(金弘道, 1745~?)의 '신선도'는 아무런 배경 없이 약 초바구니를 메고 있는 인물을 비단에 그린 그림이다. 감정이 살아 있는 듯한 청초한 인물의 표정과 얼굴의 둥근 눈매, 사실적이고 공교한 의습 등은 인물의 개성을 잘 살려 그려낸 단원 김홍도의 풍속화를 연상시킨다. 그러나 보다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를 가진 이 그림은 풍속화와 구별되며 신선도의 초연함을 은은하게 표현하고 있다



□ 겸재 정선 '웅천파도도' (101×47cm) 겸재 정선(1676-1759)의 작품이다. 웅천의 산수를 주관적이고 독창적으로 해석한 후, 주위의 경물은 생략하고 향아리 모양의 암벽을 과장하였다. 수평선을 높이 하여 암벽과 파도의 대비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화가의 대담한 화면 구성과 운필의 힘을 느낄 수 있다



□ 심사정, '화조도' (37×30cm, 지본담채) 조선시대 후기 문인화가 현재 심사정(沈師正, 1706~1769)은 산수를 비롯하여 화조, 영모 등 다양한 화재를 모두 잘 그렸다. 이 작품에서는 매화 나무가지 위에 앉은 새의 모습을 포착하여 세련되고 정교한 필치로 그렸다. 또한 매화의 꽃잎과 나뭇잎, 새의 깃털에 적색과 갈색, 청색의 담채로 아름답게 처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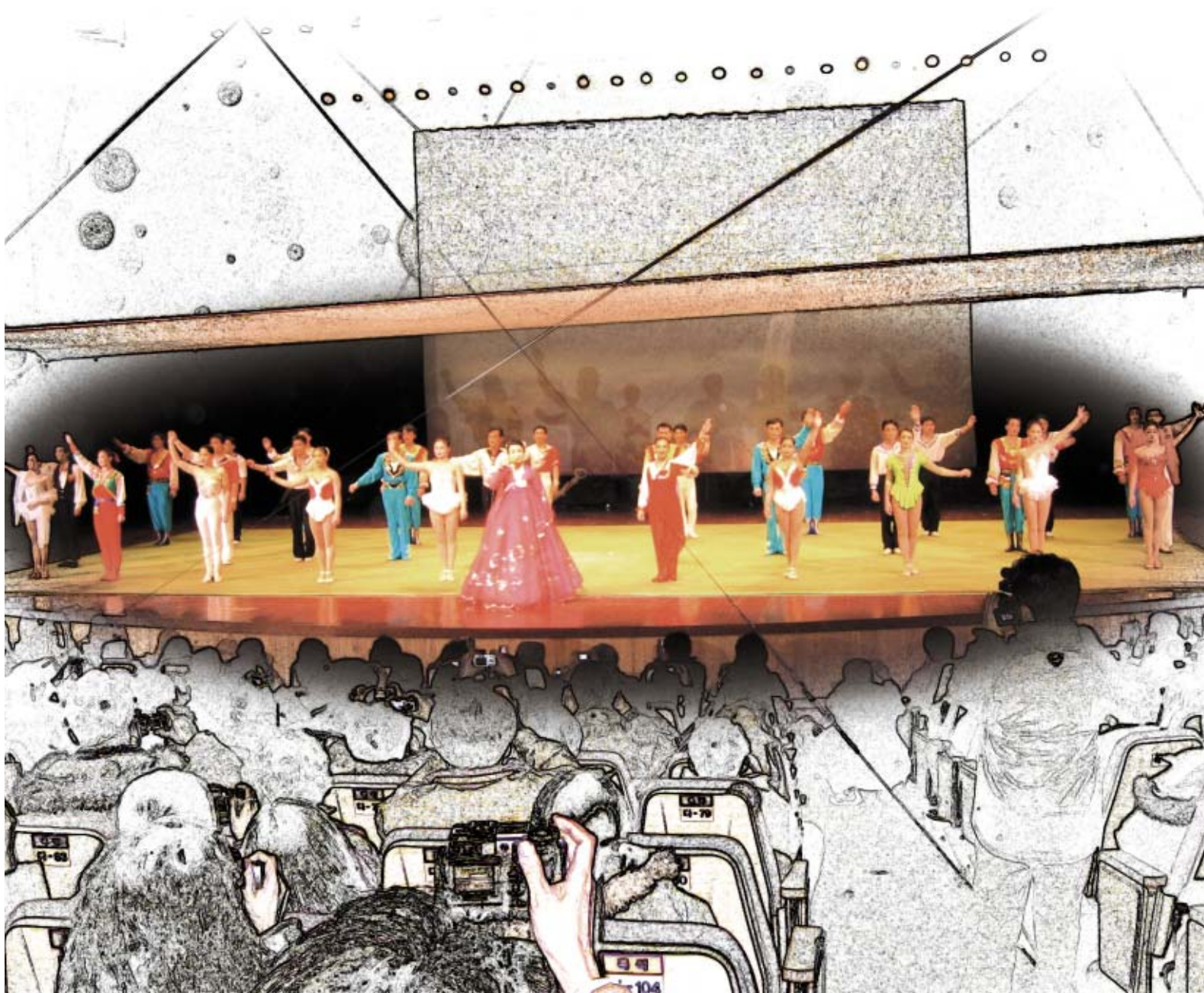


□ 발해치미 (중국 흑룡강성 영안시 상경용천부, 높이 91cm) 양쪽 나래에는 여러 개의 줄무늬와 꽃 장식을 하여 전반을 힘있고 세련되게 형성한 발해 시대의 치미이다. 치미는 지붕의 끝을 장식하는 장식 기와의 일종인데, 녹색 유약과 조화를 이룬다. 대성산성 안학궁터에서 이와 동일한 치미가 나왔는데 이것은 고구려와 발해의 문화적 계승관계를 잘 반영하고 있다. 발해의 수도인 상경성에서 출토되었다



□ 고구려 평양성 석각(너비 66.7cm) 고구려 평양성* 축성시, 성벽 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기록한 비석이다. '丙午年(566년) 12월 漢城 小兒 文達이 서북 방향을 맡는다'는 내용이다. 평양성 석각은 총 5점이 발견되었는데, 1913년과 1964년 발견된 2점이 현재 북한 조선중앙력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통일'에 대한 답을 찾게 해준 현장학습 프로그램



교사·학생 등 총 16,294명 참가

1. 개요

통일교육의 현장학습 효과 제고와 건전한 통일의식 함양을 위해 2년째 실시되고 있는 '금강산 체험연수'에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올 3월 8일까지 총 1만 6294명이 참가하였다.

연수기간 중 교사가 총 31회에 걸쳐 1만 3986명(통일교육 이수 및 통일교육시범학교 교사 596명, 중등학교 통일교과 담당교사 1만 3390명)이 참가하였으며, 학생이 총 5회에 걸쳐 1815명(통일교육시범학교 440명, 도전통일벨 등 통일행사 참가생 1375명), 그리고 통일교육 관계자 493명(총 4회, 통일교육위원 등)이 참가하였다.

연수 프로그램은 통일교육원·통일연구원·교육부 등에서 선정한 통일교육 전문가들의 사전안내 교육과 통일정책 설명, 통일관련 질의·토론, 북한노래 따라 부르기 등으로 다채롭게 구성되었다. 또한 연수기간 중 구룡연·삼일포·해금강 등으로의 산행과 교예공연 등의 관람일정도 포함되었다.

교사 97.7%, 학생 98.0% '긍정평가'

2. 추진성과 (체험연수 반응 중심)

리서치 전문기관인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연수 프로그램 참가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조사기간 3월 3일~6일, 교사 700명·학생 300명) 결과, 금강산 체험연수에 대해 교사 97.7%(매우 좋았다 57% 포함), 학생 98.0%(매우 좋았다 55.1% 포함)가 긍정 평가를 했다.

체험연수가 학생들에게 통일교육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느냐는 질문에는 교사의 96.0%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체험연수가 학생들

의 북한이해에 도움이 될 것 94.6%, 학생들의 대북관 및 통일의식 형성에 도움이 될 것 93.2%) 그리고 학생의 81.4%가 통일에 대한 관심이 체험연수 이전보다 증가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체험연수 이전보다 북한을 더 이해하게 되었다 78.4%, 향후 북한주민을 친구로 받아들일 수 있다 92.4%)

3. 소감문에 나타난 반응

- 통일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됨
- 개인적으로 실감하지 못했던 민족갈등과 분단현실을 재인식하고 통일의 당위성을 생생한 감동으로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음
- 통일의 길은 아직 어둡지만 어둠 속에서 무엇인가 계속 움직이고 있고, 어둠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손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느꼈음
- 통일을 왜 해야 하나고 물으면 답을 고민했었는데, 이제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는 너무도 값진 경험을 금강산에서 선물로 받았음
- 가장 많은 것을 배운 날. 그동안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 "통일은 이루어질 수 있다"는 확신으로 바뀌었음

- 학생을 가르치는데 큰 도움이 되었음
- 금강산 경험을 전달할 때 아이들의 눈이 반짝이는 것을 보면서 준비된 통일교육을 해야 함을 느꼈음
- 지쳐있는 교사들의 뒤를 받쳐주는 힘이 있다는 든든함을 느끼게 해주었음. 아이들에게 평화통일을 준비하는 또 한번의 날개 짓을 가르칠 수 있게 되었음
- 금강산 연수가 단순한 여행인 양 비난하는 소리도 있지만 여행 이상의 경험이 있고 가장 바람직한 통일교육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음
- 금강산체험은 어느 교과서에서도 알려줄 수 없는 분단의 아픔을 느끼게 했고, 그만큼 값진 통일교육이 되었음

4. '북측 친구에게 쓴 학생 편지'에 나타난 반응

- 한민족임을 느끼게 되었음
- 우리는 하나라는 것을 느낌
- 휴전선이 우리민족의 끊는 피와 흐르는 정을 막을 수 없음
- 여태까지 지녀온 편견이 기쁨과 희망으로 바뀜
- 통일은 꼭 이루어져야 함
- 우리 관계의 결말은 통일이라는 것을 느낌
- 같이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믿음
- 같은 생각, 같은 생활, 같은 혜택을 공유하게 될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음
- 고향에 가길 염원하시던 할아버지 대신 손녀가 금강산을 마음에 품었음
- 우리의 힘으로 통일미래를 준비해 나가야 함




대상확대 및 프로그램 다양화

5.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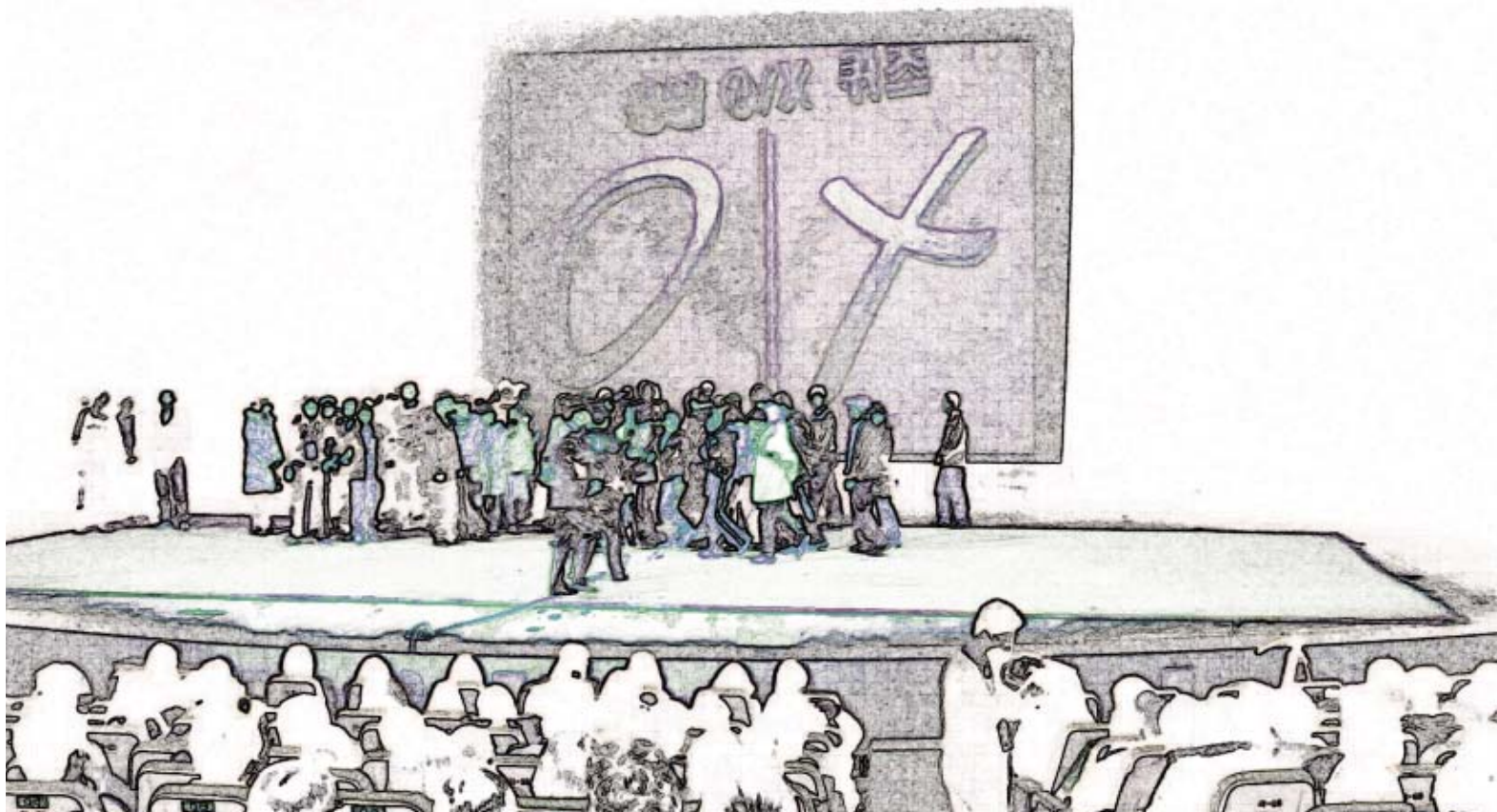
참가자들의 설문조사와 소감문 등에서도 북한에 대한 인식변화, 통일 필요성 등을 한결같이 언급하듯 금강산 체험연수를 통해 통일 교육 효과 제고 및 건전한 통일외교 함양에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교사들은 가장 기억에 남는 것으로 남북관계 발전상황을 꼽고 있어 체험연수가 어떤 교육과정보다 높은 통일교육 효과를 거양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교예공연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으로 지적한 것은 학생에게는 북한의 실생활을 알리는 문화콘텐츠가 효과적임을 반증하고 있다.

다만, 설문조사 결과 현지 통일교육 특강에 대해 흥미유발 부족 등의 답변과 현지 실무인력(관광조장)들이 지적한 참가자(교사)의 목적의식 부족 등은 향후 개선할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6. 향후 추진방향

교사 및 학생들의 체험연수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되므로 체험연수를 통일교육의 일환으로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참가대상을 확대하는 것과 함께 통일교육 특강 내실화를 위해 신중한 강사 선정, 프로그램 다양화 및 영상자료 활용, 시간 조정 등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희봉 통일부 통일교육원 교육지원팀



작가 눈으로 본 2월의 金剛山

가슴속엔 아직도 그 산과 바다가

중 국 송나라 시인 소동파가 '금강산을 한 번 보는 것이 소원'이라고 했듯이, 나 역시 오랜 세월이 걸쳐 금강산을 그리워하고 동경해왔다. 그러나 지금은 북한 땅이라, 누구도 임의대로 드나들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듯 불리한 여건 하에서도 지난 2월 그 곳을 다녀올 기회를 얻게 된 것은 내 오랜 숙원을 이룬 큰 수확이었다.

우리 일행이 관광버스 3대에 나눠 타고 2박 3일 일정으로 서울역(서부)을 출발, 금강산으로 향할 때 나의 뇌리엔 만물상의 기암절벽과 정철의 '관동별곡' 현장인 해금강으로 꽂 차 있었다. 그러나 남측 출입사무소와 비무장지대를 거쳐 북측 출입사무소를 통과하면서 그곳이 금단지역이라서인지 문득 한기를 느꼈다.

버스가 북한 지역으로 들어가 금강산 숙소를 향해 달릴 때는 보다 충격적인 광경이 차창 밖에서 전개되고 있었다. 나무를 베어낸 민둥산과 북측 군인들이 험벗은 산에서 땀감을 어깨에 메고 내려오는 모

습이 시야에 들어왔다. 길가나 논밭에서는 붉은 기를 손에 든 군인들이 우리가 사진을 찍는 것 등을 감시하느라 추위에 떨며 멍뜨게 서 있었다. 멀리 보이는 낡고 허름한 집들, 칙칙한 회색 옷과 남루한 옷차림의 그곳 주민들이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자전거의 질주, 그 어느 것 하나 50년대 전후의 그것과 다를 바 없어 가슴이 저러오고 서러움이 목까지 치밀었다. 금강산 일대가 오지이긴 하지만 명색이 관광지 주변인데 오죽하면 저런 광경을 노출할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그런 실태를 미뤄 북한의 경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가히 짐작할 수 있었다.

이러한 지적은 북한의 낙후된 면을 부각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실태파악을 통해 통일의 당위성을 체험할 수 있음을 일깨우기 위함이다. 심각한 경제난에 처해있는 북한주민들을 방관하면서 과연 우리의 국력과 행복을 자랑할 수 있는지, 더구나 북한이 못산다해서 통일반대 구호를 외친다면 그것이 민족공동체 의식을

저버리는 이기적 처사는 아닌지, 자기성찰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금강산관광 현지에서 구룡연 코스에 오를 때 나는 책자와 사진을 통해 본 비봉폭포와 옥류담·구룡폭포·구룡대 등이 눈에 섰지만, 눈길이 미끄러워 패나 불편을 겪어야만 했다. 사전에 아이젠을 준비하지 못한 게 결정적 실수였다. 하산 길은 더욱 위험할 것 같아 나는 중도에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두어 번 미끄러질 뻔했던 나는 북측안내원의 부축을 받고서야 겨우 내려올 수 있었다. 그 안내원은 내게 말을 걸어왔다. 끊임없이 이어진 질문과 대화는 그와 헤어질 때까지 거의 한 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나는 구룡연 초입의 목란관으로 향하였다. 하산하는 일행과 함께 거기서 점심을 먹기 위해서였다. 한데 그들의 하산 예정시간은 한 시간이나 남아 있었다. 마침 목란관 앞 구멍가게를 들락거리던 한 사내가 내게 다가왔다.

그의 접근태도나 질문 순서, 내용 등은 앞서 만났던 안내원과 판에 박은 듯 똑같았다. 그는 내게 이런 말을 했다.

“돈이 있다고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군님의

지도를 받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돈이 없어도 행복합니다.”

나는 한 마디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요. 돈은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지만, 행복의 조건은 아니죠.” 그의 질문은 비약했다.

“그럼, 통일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남북 간에 인적·물적 교류가 확대돼야 하겠죠. 왕래가 잦다보면 통일조건이 성숙되지 않겠어요?” 나는 주저하지 않고 그렇게 대답했다.

“저는 여기서 남측 정치인도 여러 명 만났습네다만, 선생님 같이 말씀하시는 분은 여태 못봤습네다.”

그 말이 무슨 뜻을 내포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내가 그에게 담배 한 대를 권하자, 그는 스스럼없이 받아 피우는 것이었다.

금강산관광에서 만물상을 빼놓을 수 있으랴. 만물상은 온 산이 기묘한 바위로 이뤄져 그 형상이 마치 세상만물을 한 곳에 모아놓은 것 같다해서 예로부터 그렇게 불렀다하지 않는가. 해금강은 어떤가. 끝없이 설레는 바다 위에 기묘한 바위기둥이 서 있고, 푸른 소나무가 우거진 여러 섬들이 펼쳐져 있으니 금강산에 가서 어찌 해금강을 보



지 않으리. 그런데 안내원은 만물상이나 삼일포를 포함한 해금강 중 한 군데만 골라 선택관광을 해야 한다고 하니 어찌 하랴. 나는 전날 아이젠을 준비하지 않아 구룡연 등산도 포기했던 처지에 감히 만물상을 넘볼 수 있으랴 싶어 해금강을 택했다.

해금강에서는 넓은 바다를 안고, 비바람에 씻기고 바닷물에 깎여만 가지 형상을 드러낸 해(바다)만물상이 절경이다. 배가 얽어진 것처럼 보이는 배바위, 사공이 우뚝 서 있는 듯한 사공바위, 아기가 책을 쌓아놓고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동자바위, 그리고 고양이바위, 잉어바위 등 갖가지 형상의 기암들이 팔경의 하나로 관광객들의 발길을 유혹하고 입에선 감탄사를 토하게 했다.

이번에는 자연호수 삼일포로 향했다. 물과 푸른 송림, 참대 숲이 조화를 이룬 호수 한가운데에 와우도가 떠 있었으나 얼어붙은 물에 사로잡힌 상태였다. 본래 신라의 화랑들이 그곳에 사흘 동안 머물렀다해서 삼일포라 부르게 됐다고 전해진다.

금강산 문화회관에서는 교예 관람예매권을 판매하고 있었다. 나는 어렸을 적 기억이 되살아나 평양모란봉예술단의 그 공연을 관람했다. 한데 과거 내가 본 서커스보다 별로 나은 게 없는 성싶었는데, 처음으로 접하는 학생들은 시종일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고난도의 묘기라며 감탄사를 연발하고 있었다.



이번 관광에서 나와 몇몇 동료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을 경험하는 에피소드의 주인공이 되었다. 우리가 금강산 현지에 도착하기 전에 어떤 관광객이 사고를 저질러 금강산휴게소 일대에 통행금지령이 내려졌다. 그로 인해 휴게소와 숙소 사이를 운행하던 모든 차량과 사람들이 오후 7시 이후 발이 묶이고 말았다. 그런 와중에 우리가 현지에 도착하자, 때맞춰 통행금지가 해제되었다며 현대아산 안내원들이 무척 기뻐했다.

나는 늦은 시각에 동료들과 함께 숙소에서 나와 휴게소 상점에 들러 몇 가지 용품을 구입하고, 버스에 올랐다. 한데 숙소를 향해 달리던 버스가 중간초소 앞에서 갑자기 정차하는 것이었다.

무슨 일인가 싶어 차창 밖을 내다봤더니, 북측 군인들이 붉은 기를 흔들며 휴게소로 회차하라는 것, 통행금지가 해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혼란 속에 늘어난 버스가 열네 대, 무려 4백여명의 관광객이 휴게소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우리 침침하고 텅 빈 서관광장에 서서 꼼짝달싹 할 수가 없었다. 안내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긴 했으나, 그들도 뽀족한 대책이 없는 듯 했다. 결국 우리는 20분쯤 지나고 나서야 현대아산 측의 교섭으로 숙소로 돌아올 수 있었다.

금강산관광 현지에는 여러 형태의 숙박시설이 갖춰져 있고, 동관과 서관의 온정각에선 식당과 휴게소, 면세코너 등을 운영하고 있었다. 북측에서도 직접 영업소를 운영하고, 화폐로는 주로 달러, 게다가 금강산관광 카드를 이용하는 것도 특이했다. 남과 북이 천 오백 년 묵은 신계사 복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현장은 내게 깊은 인상을 남겨 줬다.

‘명산과 대해를 보고 서울로 쓸쓸히 돌아가네
몸은 다시 세상의 속된 티끌 속에 묻혀도
가슴속엔 아직도 산과 바다가 남아 있네’

조선 영조 때의 문인 정암 민우수는 ‘귀로’라는 시제로 금강산을 보고 귀경하는 마음을 그렇게 읊었으니, 지금의 내 심정을 대변해 주는 것 같다.

가슴 속엔 아직도 그 산과 바다가. 🌄

김도영 방송작가 · 시인
동해바다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남과 북이 서로 합류하여 흐르는데, 북한의 극심한 경제난을 이유로 통일을 반대하거나 통일에 아예 무관심한 시대적 풍조가 안타깝기만 하다고...

북한주민의 생활경제 속 화폐

시장·현금거래 증가로 '가치척도'·'유통수단'으로 재규정

1. 북한의 화폐 종류

북한화폐는 '평성상표인쇄공장'에서 인쇄되고 있다. 현재 북한은 조선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지폐 10종(1, 5, 10, 50, 100, 200, 500, 1000, 5000원, 10000원)과 주화 6종(1, 5, 10, 50전, 1원, 100원)을 사용하고 있다.

북한 화폐의 규격은 1992년 '신규화폐개혁'부터 유지되어 온 것으로 가로·세로 동시 확대형이다. 1원권이 116mm×55mm로 가장 작고(우리나라의 1천원권 보다 작다) 상위권종으로 갈수록 가로 10mm와 세로 5mm씩 확대된다. 그러나 1998년 발행한 500원권과 그 이후에 나온 1,000원권은 둘 다 100원권과 크기(156mm×75mm)가 같다.

북한에서는 주로 김일성의 초상화와 사회주의 상징물을 화폐의 모델로 삼고 있다. 주화의 앞면을 보면, 1원짜리에는 평양 인민대학습당, 50전에는 천리마상, 그리고 10전·5전·1전에는 각각 북한의 국장^{國章}이 그려져 있다. 그렇지만 2005년도에 새로 나온 100원짜리 주화에서는 국장과 돈 액수를 표시한 숫자만 제시되어 있다. 뒷면을 보면 우리나라와는 달리 북한화폐에는 발행연도만을 표시하고 발행 당국자의 날인과 서명은 없다. 또 화폐에 표기하는 언어는 한글만 사용하고 화폐색깔은 권종마다 모두 틀리다.

2. 화폐와 주민생활

1) 화폐를 다루는 태도

북한화폐는 화폐용지의 질이 떨어지고 손상화폐의 보충에 드는 재정난으로 인해 화폐를 제때에 찍어내지 못하고 있어 새 지폐를 찾아보기 힘들다. 그렇지만 이것과 별도로 북한주민들은 화폐, 특히 고액권을 정히 다룬다. 그것은 김일성 초상화가 그려진 지폐(100원, 1000원, 5000원)를 훼손하면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주민들은 지폐가 혹시 찢어지더라도 하면 초상이 있는 면이 아니라 될 수 있

는 한 뒷면을 손질한다. 초상이 있는 면을 불가피하게 손질해야 할 경우에는 김일성의 초상이 가려지지 않도록 투명 비닐테이프를 붙인다.

2) 화폐개혁과 저축

북한 주민들은 저축 시 흔히 '현화'라고 부르는 달러를 선호한다. 이것은 1달러가 시장가격으로 3000원(공식환율은 1달러 당 143원)으로 환율이 높아 저축에 유리하기 때문만이 아니다. 또 저금한 돈을 찾으려면 인맥을 내세워야 하고, 심지어 송금 받은 돈조차도 제때에 찾기 어렵기 때문만도 아니다. 이유는 북한 당국의 잦은 화폐개혁에 따르는 후유증 때문이다.

북한에서는 1947년 12월 첫 화폐개혁 이후 1992년 7월 신규개혁까지 총 4차례 화폐교환이 있었다. 이 중 가장 최근인 1992년 7월 '신규화폐개혁'을 살펴보자. 당초 취지는 1990년대 들어 발생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화폐유통에 지장을 주고 있는, 장롱 안에서 잠자고 있는 뭉치돈을 끌어내자는 것이었다.

먼저 북한은 1991년 12월부터 1992년 1월말까지 인민복권을 발행하였다. 복권발행은 1951년 10월에 군수물자 조달과 재원확보를 위해 '조국보위위원회' 이름으로 '조국보위복권'이라는 복권을 발행 뒤 처음이었다. '신규화폐개혁'을 앞둔 4개월 전인 3월부터 쌀을 제외한 농·공산품의 가격이 2배 이상 인상되었다.

이러한 속에 '신규화폐개혁'이 실행되었는데 북한 당국은 주민들에게 1:1의 비율로 신규화폐를 교환하면서, 1가구당 399원만 신화폐로 바꾸어주고 나머지는 저금시키도록 하였다. 이 때문에 저금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엄청난 재산을 날려버렸다. 화교나 재일교포의 피해가 특히 컸다. 이때의 경험이 주민들의 심리를 자극하여 오늘날까지도 '달러'를 선호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다.

3) 북한의 특수화폐 '외화외바꾼돈표'

원래 북한은 1979년부터 '외화외바꾼돈표'라는 특수화폐를 통용



시켰는데, 이 화폐는 외화의 국내유통을 통제할 목적으로, 또 북한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외화를 북한에서 쓰고자 하는 경우 외화 대신에 쓰게 한 돈이었다. 그러나 1997년 나진-선봉 경제무역지대에서 '외화외바꾼돈표'를 우선 폐지했고, 1999년 3월에는 외국인의 경우 직접 외화로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2002년 2월부터 외화현금은 북한의 '원'만으로 바꾸어 쓰도록 '외화관리법'을 개정하였다.

그렇지만 2005년 가을께부터 '신용카드'로 불리는 IC카드 방식의 전자화폐(남한의 카드를 의미)를 유통시키고 있다. 이 카드는 외화 전용 전자화폐로서 종전의 '외화외바꾼돈표'를 대신하는 셈이다. 북한 유일의 전문국가보험기관인 '조선국제보험회사'(북한내 명칭은 대외보험총국) 산하 동북아시아은행에서 발행하고 있다. 이 카드는 외화를 입금하면 그 금액만큼을 카드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현재 평양의 경우, 외화전용 식당과 백화점 등 약 20개 점포에서 이 카드를 취급하고 있다.

3. 최근의 화폐관련 북한당국의 정책변화

과거 북한주민들의 생활에서 화폐는 큰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북한의 당국자들은 고전적 사회주의 이론가들이 구상한 '화폐가 없는 경제체제', 즉 화폐를 통해 거래되는 상품화폐관계가 아닌 계획경제체제를 꿈꾸고 국가가 정한 유일가격을 강제하였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화폐는 상품의 실제 가치를 반영하는 가치척도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다.


또 사유재산제도를 인정하지 않아서 축적수단으로 기능하지 못한 것과 국가 공급망을 통한 상품공급으로 인하여 유통수단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것도 화폐가 중요하게 취급되지 못한 원인이었다. 이 밖에도 배금주의에 대한 북한체제의 선전, 그리고 평등을 내세운 국가적 복지제도도 일정 부분이 작용하였다.

그러나 최근 북한주민들에게도 화폐는 생활의 중심으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7.1경제관리 개선조치' 이후 국가복지영역이 거의 축소

되고, 많은 것을 시장에서 사서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생활조건의 변화가 화폐를 가치척도수단·유통수단으로 재규정하게 만든 것이다.

즉, 1990년대 이후 공식부문의 상품생산이 중단되다시피 하면서 비공식 부문인 농민시장을 거점으로 현금거래가 증가되었다. 현금거래가 증가되었다는 증거는 작년 5월 북한 당국이 200원짜리 지폐를 새롭게 발행하고, 11월에는 100원짜리 동전을 새로 유통시킨 것에서도 찾을 수 있다. 오늘날 북한 주민들의 씀씀이를 보면 100원권은 유통수단으로(우리나라의 1000원격), 1,000원이나 5,000원권은 축적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결국 북한 화폐기능의 변화는 위(국가)로부터가 아니라 아래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셈이다.

화폐를 통한 상품유통의 범위가 소비재뿐 아니라 생산재로 점차 확대되자 정권으로서의 화폐제도의 공식적인 장려를 모색할 수밖에 없었다. 그 조짐으로 나타난 것이 고액화폐의 발행, 중복화폐 발행을 통한 권종 확대이다.

이것이 김정일 통치시대에 맞는 화폐개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된다. '7·1 경제관리 개선조치' 이후 화폐의 기능이 변화되었고, 북한이 지난 시기 10~15년 간격을 두고 4차례 화폐개혁을 실시한 점을 고려할 때 시기적으로도 화폐개혁 조치를 취할 때가 되었다는 조심스런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김병욱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원
본인 자신이 새터민으로서 민족화해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싶다는 그는 "북녘은 태를 묻은 고향이기에 사랑하고, 남녘은 북녘에서 꽃피울 수 없었던 지성인으로서의 삶을 꽃피울 수 있도록 해주었기에 더욱 사랑한다"고



남북 학술교류의 중요한 '단초'

고구려 '안학궁터' 남북 공동발굴

최근 고구려연구재단은 평양에 있는 고구려 안학궁(안학궁)을 북한의 문화보존지국 등과 함께 공동발굴·조사하였다. 올 1월 23일 북측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와 안학궁 공동발굴에 합의한 이후 재단에서는 착실히 발굴 준비를 해왔고, 지난 4월 8일부터 19일까지 재단 내외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발굴단(단장 김정배 고구려연구재단 이사장)이 평양에 들어가 안학궁을 조사하고 돌아왔다.



중국의 동북공정으로부터 우리의 고구려사를 지킨다는 고구려연구재단의 소임을 생각할 때, 장수왕 이후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에서 고구려 시기의 왕궁으로 추정되던 안학궁의 실체를 확인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북한학계는 안학궁을 고구려가 427년 평양으로 천도한 후 사용한 평지성으로 보고 있는데 비해, 한국과 일본학계는 고구려 시대로 보는 견해와 고려시대에 축조된 궁성으로 보는 견해로 나뉘어 있었다. 안학궁에 대해 이렇게 견해가 분분한 데에는 안학궁이란 명칭이 삼국사기·삼국유사 심지어 고려사나 고려사절요에도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한 원인이었다. 또 안학궁을 처음 언급한 '동국여지승람'의 기록이 사실과 차이를 보이는 것도 한 원인이다.

축조시기 놓고 학계의견 분분

각 역사서의 기록을 살펴보기에 앞서 고구려의 축성방식 및 수도에 대해 기본적인 사실을 정리해보자. 고구려에서는 왕궁(평지성)과 산성을 따로 만들고 전쟁 시에는 왕이 산성으로 들어가 방어를 하였다. 이렇게 평지성과 산성을 하나의 세트로 하여 도성체계를 형성한 것은 고구려의 첫 번째 수도 때부터였다. 그러나 이러한 도성방어체계에서는 산성에 들어가 항거하는 동안, 산성에 들어가지 못한 주민과 재산 그리고 평지의 왕궁이 적에게 유린되었다. 이에 고구려는 평지에 성을 쌓고 지배층과 주민이 함께 적에게 대항하는 형태로 전환하였으니, 그렇게 쌓은 성이 바로 장안성이다.

한편 '안학궁'이란 명칭을 처음 사용한 동국여지승람을 보면, '안학궁원'이 안학궁 북쪽에 있다. 대성산성(大城山城)은 돌로 쌓았고, 둘레가 2만 4천 3백 척이다. 장안성(長安城)은 대성산 동북쪽에 있는데, 흙으로 쌓았으며, 둘레가 5천 1백 61척이고, 높이가 19척이다. 고구려 평원왕(平原王) 28년(586)에 평양에서부터 이 곳으로 옮겨와 살았으며, 성 가운데에 안학궁 옛터가 있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장안성이 대성산 동북쪽에 있다거나, 장안성 가운데에 안학궁의 옛터가 있다는 표현은

사실과 차이가 있다.

이렇듯 안학궁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문 가운데서 이번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것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성벽기반부가 고구려식 들어쌓기 방식으로 축조되었음이 확인되어 안학궁이 고구려가 처음 축조한 성이라는 사실이 확실해졌다. 둘째, 출토된 와당이 5세기 중반 경까지 연대를 소급할 수 있어 안학궁이 427년 이후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고구려 평양천도 후 왕궁사용 확실

즉 고구려가 장수왕 15년(427)에 평양에 천도한 이후 평원왕 28년(586)까지 안학궁을 왕궁으로 사용하였다는 견해가 확고해졌다. 나아가 안학궁이 427년 이후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안학궁의 축조는 그보다 여러 해 전에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광개토왕대나 장수왕대 초기부터 안학궁이 축조되기 시작하였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안학궁은 대성산 남쪽 봉우리인 소문봉의 남쪽 기슭 구릉지대에 있다. 왕궁의 형태는 약간 기울어진 정사각형의 모습을 하고 있고, 성벽 한 면의 길이는 약 622m이며, 왕궁의 총 면적은 약 38만㎡이고, 총 21개 건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안학궁은 장안성의 동쪽 편에 있는데 바로 뒤편의 대성산성을 산성으로 활용할 뿐 아니라 대성산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물을 이용하여 성의 양쪽에 해자를 만들었다. 성벽의 밑은 돌로 쌓고 그 위에 흙을 쌓아올리는 독특한 형식을 취하였다. 성벽의 두께는 지대에 따라 얼마간의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8~9m이고, 높이는 약 12m이다.

안학궁성에는 4개의 성벽에 성문이 있는데, 남쪽 성벽에는 3개의 성문과 수구문이 있고, 나머지 3개의 성벽에는 성문이 1개씩 있었다. 안학궁의 지면은 남쪽이 낮고 북쪽이 높는데 그 수평차이는 약 20m이다. 또, 동쪽이 낮고 서쪽과 가운데가 높는데 그 수평차이는 약 17m이다.



왕궁의 건물은 좌우 대칭법과 비대칭법이 배합되어 배치되었고, 왕궁전체가 조화된 건축군을 형성하고 있었다. 안학궁의 중심건물들은 토성의 남문에서 정북으로 그은 왕궁터의 중심축 위에 배치되어 있다. 중심건물도 남북으로 3개의 단위를 이루고 있다. 이 건물들을 편의상 남궁·중궁·북궁으로 구분하면 남궁의 중심건물은 외전이고, 중궁의 중심건물은 내전이며, 북궁의 중심건물은 침전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외에도 궁성에는 동궁·서궁·정원터·연못 등이 있었다.

회랑을 많이 설정한 것도 안학궁 건축의 주요한 특징이다. 안학궁의 모든 건물들은 회랑을 갖추고 있었다. 남궁 제1호 궁전의 회랑 너비가 중궁 제1호 궁전 그것보다 더 넓고 북궁 제1호, 제2호 궁전의 회랑 너비는 중궁의 그것보다 좁아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일정한 비율로 좁아졌다. 이러한 궁전 배치는 안학궁의 길이가 실제로는 622m이나 남문에서 들여다보면 거의 두배의 길이로 보이게 하는 효과를 냈다.

궁터 북쪽과 서남쪽에는 흙으로 인공적으로 동산을 만들고, 연못도 조성하였다. 동궁이 있던 동쪽 낮은 지대에는 여러 개의 연못을 파고 정원을 조성했던 자리가 있다. 특히 성안의 동남쪽에는 큰 연못을 만들고 북쪽, 성벽 밑으로 수문을 내어 대성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끌어 들이고, 남쪽 성벽에는 연못의 물이 빠지도록 수문을 만들었다.

중국 동북공정에도 효율적 대처

이번 발굴에서 확인된 이상의 사실들로 안학궁 연구가 완결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앞으로 확인하고 규명해야 할 것은 아직도 많다. 다만, 고구려연구재단은 이번 발굴조사를 통하여 그동안 학계에서 논란이 되어 왔던 안학궁이 고구려 평양천도 이후에 사용된 王城임이 확실해졌고 3D 스캐닝을 통하여 궁성의 배치구조에 대한 새로운 자료를 얻게 된 것에 크게 고무되어 있다.

그리고 재단 측에서는 이번 안학궁 발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짐으로서 앞으로 북한지역의 유적에 대한 남측의 발굴이 지속적으로 전개되게 되고, 남북학술교류의 중요한 단초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나아가 이번 안학궁 발굴은 중국의 동북공정에 남과 북이 한마음으로 공동 대처한다는 의미도 갖는 것이어서 한민족사의 전개과정에서도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 것으로 판단된다. 🌐



이인철 고구려연구재단 연구기획실장
본인이 본 평양은 조용하고 아름다운 도시였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순수하고 친절했다고. 이 도시에 자동차 소음이 매연, 그리고 부동산 투기꾼들이 날뛰는 상황은 설정하기조차 싫었다는 그는 통일 이후 바람직한 한반도 경제모델이 과연 무얼고 고민하게 된다



사진-상
안학궁에 도착, 발굴준비회의: 중앙의 푸른 상의가 필자. 그 왼쪽 사진기 들고 말하는 사람이 김일성종합대학 남일룡 교수, 맨 왼쪽이 고구려연구재단 김정배 이사장. 필자 오른쪽 첫 번째가 한국고고학회장 최병현 교수(송실대), 그 다음이 고구려연구재단 오강원 연구원, 맨 오른쪽이 한국사연구회장 노태돈 교수(서울대)

사진-중
남궁제1트랜치조사 모습: 남북학자들이 공동으로 발굴을 하고 있는 장면

사진-하
동벽 부분 발굴 후 모습: 동벽을 현 지표에서 120cm 정도 파고 내려간 결과,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은 전형적 고구려의 들어쌓기식 축성방식이 나타났다. 이로써 안학궁이 고구려시기에 축성된 성곽임이 확실해졌다

역시,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라!

‘평양-남포 통일마라톤(손)대회’ 출정기

처음에 북녘땅 체험기에 대한 원고청탁 전화를 받았을 때는 쉽게 승낙을 했다. 작년 11월 평양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던 기억이 생생하게 머릿속에 남아 있기 때문에 할 얘기가 많을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의외로 마감 전날이 되도록 원고에 손을 대지 못했다. 떠오르는 장면 장면들은 많지만, 반세기 넘게 갈라져 살았던 북녘 땅을 겨우 3박 4일 동안 다녀와서 짧은 글로 정리한다는 게 아무래도 쉬운

일은 아닌 듯 싶었다. 원고 마감하는 날, 회사 여직원이 가져온 북한산 ‘백두산 들쭉술’을 두어 잔 마시자 원고에 손을 댈 수 있었다. 아무래도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은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이처럼 술 한 잔의 여유와 함께 가슴을 열고 다정다감한 눈으로 바라봐야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측면이 많은 것 같다. 여직원의 남편이 개성공단 출장을 다녀오면서 사왔다는 백두산 들쭉술은 평양에 갔을 때 여러 차례 마실 기회가 있었다.





특히 평양도착 첫 날, 고려호텔 만찬에서 마신 백두산 들쭉술의 그 진한 맛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

백두산 들쭉술을 마시며

작년 11월 23일 우리 남측 마라톤 참가단 일행은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하여 서해 직항로를 통해 평양에 도착했다. 처음으로 평양땅을 밟았다는 감회, 처음으로 마주친 북한 동포들, 평양 한 복판을 달리게 됐다는 기대감, 이 모든 것들이 술 한 잔 마시지 않아도 이미 마라톤 대회 참가자들을 흥분하게 만들었다.

“한 잔 쪽 냅시다” 연거푸 술잔 기울던 첫 날

마라톤 대회를 앞두고 며칠 동안은 철저히 금주하는 게 일반적인 관례이고, 특히나 하루 전날은 술을 입에도 대지 않는 게 철칙인데도 이 날 남쪽의 아마추어 마라토너들은 “한 잔 쪽 냅시다”라는 북한말투를 흉내 내며, 대부분 연거푸 술잔을 기울였다. 북쪽 안내원들은 이렇게 기분 내는 남쪽 사람들과 분위기 맞추며 거의 매일 술 마시느라 위장병을 달고 산다며 하소연을 하기도 했다.

내 옆자리에 앉은 순진한 인상의 북한 민족화해협의회 소속 안내원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새신랑인데 매일같이 야근하느라 신혼의 꿀맛을 못 본다며 볼멘소리를 하기도 했다. 공식만찬이 끝난 뒤에도 남쪽 참가자들은 호텔의 바에서 2차·3차를 하며 첫날밤의 경험을 만끽했다.

그 다음날인 11월 24일, 마라톤 대회가 열리는 날 아침 고려호텔 창문을 열어보니 평양 시내엔 운무에 떠 있는 다도해로 변해 있었다. 대동강이 흐르고 기온 차가 심해서 그런지 평양에는 짙은 안개가 자주 깔린다고 한다. 호텔 로비에 나와 보니 고급 승용차 두 대가 세워져 있었다. 북한 안내원은 김일성 주석이 타던 차인데, 마라톤 행사 때 사진기자들에게 취재용으로 제공된다고 설명했다. 룸메이트와 기념사진을 찍고 있자니, 호텔 앞으로 제법 많은 평양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었다. 그 중에는 엄마 손을 잡고 지나가는 어린 아이들도 많았다. 아마도 직장 출근길에 아이들을 탁아소에 맡기러 가는 듯 했다. 그 중에 푹푹푹하게 생긴 사내아이와 동행하던 북한 여성에게 “사진 한 장 함께 찍을까요?”하고 말을 건넸더니 흔쾌히 응해 주었다. 아마도 고려호텔 앞으로 지나다니는 시민들은 외국관광객이나 남쪽 동포들과 마주 칠 기회가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대하는 게 아닌가 싶었다.

북에 숨겨 둔 가족상봉 장면처럼 아직도 ‘짱’

바쁜 출근길만 아니라면 이 얘기 저 얘기 나누고 싶었지만, 바로 옆에 북쪽 안내원도 서 있고 해서 디지털 카메라에 찍힌 사진을 보여준 뒤 모자와 작별 인사를 했다. 북한에서 최초로 만난 이들 ‘보통 사람들’ 사진은 내가 북한에서 찍은 사진 중에서 제일 정감이 가는 인물사진(좌측하단 사진)이다. 남쪽에 내려와서 달리기 모임 온라인 카페에

이 사진을 올렸더니 “북에 숨겨 둔 가족과 상봉하는 장면 같다”며 재미있어 했다. 그 얘기를 듣고 가끔 텔레비전에 나오는 이산가족 상봉 장면이 떠올랐다. 몇십 년 만에 만나서 사진 몇 장 찍고는 다시금 헤어져서 그 사진을 바라보는 이산가족들의 마음은 어떨까?

평양마라톤대회의 공식 명칭은 ‘평양-남포 통일마라톤대회’였다. 처음에는 플래카드에 오자가 난 줄 알았는데, 북한에서는 마라톤을 마라손이라 표기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분단 60년 만에 어디 달라진 게 마라손 같은 언어뿐이라! 언어가 같다는 것 빼 놓고는 외국여행 온 것 이상의 낯설음과 차이를 느낄 수 있었다.

이번 코스는 평양의 서산축구장을 출발해 남포로 향하는 왕복 10차선의 광복거리를 달려 돌아오는 것이다. 서산축구장 앞에 마련된 스타트 라인에 섰을 때 웬지 모를 설렘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미 여러 차례의 풀코스 대회 참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프마라톤에 대한 부담은 없지만 신천지를 달린다는 것이 마음을 설레게 만든 것 같다.

출발한 뒤 5Km까지는 영화 ‘말아톤’의 실제 주인공인 배형진씨를 뒤따라 달렸다. 하프마라톤 최고기록이 1시간 38분이었던 나로서는 따라가기 힘든 1시간 30분대의 페이스였다. 그런데 물을 마시기 위해 5Km 지점 급수대에 들른 배형진씨를 잠시 기다리는 사이에 북한 선수 2명이 우리를 추월해서 지나갔다. 아직 목이 마른 것도 아니고 해서 북한 선수를 뒤쫓아 가기로 마음먹었다.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은 몸으로 느끼는 것인데, 바로 옆에서 함께 달리는 사람과 강한 동질감을 갖게 된다. 서로 말은 안 해도 몸과 마음이 어떤 상태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동지에 같은 것을 느끼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벌써 남과 북이 통일되지 않았습니까?”


북한의 방민선 선수에게도 10Km 지점을 통과할 때부터는 그런 마음이 전해지기 시작했다. 힘들수록 그 느낌은 더욱 진하게 전달된다. 아무 생각 없이 앞만 보고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남쪽의 방송기자 한 명이 뛰어들어 마이크를 들이댔다.

“함께 달리니 기분이 어떻습니까?”

마주 잡은 손을 흔들어 보이며 대답했다.

“이렇게 우리는 벌써 남과 북이 통일되지 않았습니까?”

15Km 지점을 통과할 때는 더 이상 함께 달리기 어려웠다. 두어 명이 우리를 추월해서 앞서 나갈 때 방민선 선수에게 “먼저 가라”고 말했으나, 그는 “힘냅시다”하면서 끝까지 나와 보조를 맞춰주었다. 드디어 20여Km 끝인 지점이 눈앞에 들어왔다. 손을 맞잡고 끝인하면서 문득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라는 노랫말이 생각났다. (52P 좌측상단 사진)

20여Km를 함께 달리면서 느꼈던 온기와 숨결과 마음은 그 어떤 남북의 차이로도 갈라놓을 수 없는 뜨거운 동포애가 아니었나 싶다. 



‘평양-남포 통일마라톤(손) 대회’

주최: 오마이뉴스, 북한 민족화해협의회

시기: 2005. 11. 23 ~ 26

일정

첫날: 현영만찬

둘째날: 마라톤 대회

마지막날: 묘향산 보현사 등

관광 및 환승식

참가 규모

남측 144명

북측 50명



최진섭 월간 ‘좋은엄마’ 발행인

만경대·묘향산·평양시내 풍경들이 슬라이드처럼 지나가지만, 그래도 본인 뇌리에 진하게 남아있는 건 사람들이란다. 민화협외의 새신랑 일꾼, 평양시내를 함께 달리던 철도노동자, 용문대굴의 처녀 안내원 등... 이들은 바로 우리의 한겨레, 한 핏줄이었다고



영변의 흥놀이 아버지



조영훈 방송작가 · 소설가
 제18회 월간문학 신인상 희곡 '문밖에서' 당선.
 문화방송 개국 기념 드라마 공모 라디오연속극 부문 '파란낙엽' 당선.
 월간 '학원' 기자, 월간 '소설 주니어' 편집장 역임, 한국방송작가협회 이사 역임.
 펴낸 책으로 '열한 번째의 사랑' '도시의 새' '춧불놀이' '모든 악기는 소리를 낸다' '초록일기' 등 다수

승우가 그 할아버지를 안 것은 아빠를 따라 새벽 운동을 나가
 가기 시작하면서였다. 새벽 운동이라고 해야 집 부근에
 있는 한강 시민공원을 걸거나 조금 뛰어보고 적당한 지점
 에서 잠시 맨손체조를 하고 돌아오는 정도로, 요즘 들어 자꾸 살이
 찌서 자칫 하다가는 비만이 되겠다며 운동이라도 해야겠다는 엄마의
 성화에 못 이겨 아빠를 따라 나섰던 것인데 그 등 떠밀려 나간 자리
 에서 할아버지와 처음 만난 것이다.

처음 보는 할아버지의 모습은 확실히 남다른 데가 있었다. 하얀 백
 발을 날리며 힘에 부치게 달리기에 열중한 노인...
 아빠가 먼저 아는 체를 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응, 기래. 아침 운동 나왔네. 오늘은 혼자 아니구만 기래. 아들
 내민가?”
 “예, 아들 녀석하구 같이 나왔습니다. 그 동안 공부다, 뭐다, 책상
 에만 앉아 있어 몸이 약해진 것 같아 체력이나 좀 키워주려고요.”
 역시 아빠는 다르다. 엄마는 비만이니 뭐니 듣기 싫은 소리만 골라
 하는데 아빠는 체력을 길러 주시겠다고 한다. 승우는 그런 아빠가 고
 맷다.

“글쎄다. 마라톤 대회에 나가면 못 뛰실 리도 없겠지만 그런 것 같
 지는 않더구나. 할아버지가 저렇게 아침마다 달리기를 하시는 데는 나름대로
 까닭이 있다고 하시더구나.”

중2, 열다섯 살. 키 169cm에 몸무게 61Kg이 뭐가 잘못 됐다고 엄
 마는 하나 뿐인 아들을 비만으로 몰아붙이지 못해 안달이신지. 무슨
 신체검사 판정관도 아니면서.

“거림. 체력 좋지. 사람이 공부를 하자고 해도 힘이 있고 건강
 해야 하는데 체력만큼 세상에 소중한 게 어디 있겠네. 기림 또 보
 자우.”
 말씀하시면서도 달리는 것을 멈추지 않고 할아버지는 그렇게 그

들 걸을 지나쳐갔다.
 승우가 물었다.
 “어디 마라톤 대회에 나가려고 연습하시는 모양이죠?”
 “마라톤 대회? 네 눈에는 그렇게 보이니?”
 “네.”
 “글쎄다. 마라톤 대회에 나가면 못 뛰실 리도 없겠지만 그런 것 같
 지는 않더구나. 할아버지가 저렇게 아침마다 달리기를 하시는 데는
 나름대로 까닭이 있다고 하시더구나.”
 “까닭이요?” “그래, 그것도 아주 중요한...”
 마침내 목표한 지점에 이르러 잠시 맨손체조를 하고 돌아오는 길
 에 아빠가 말했다.
 “너 영변 알지?”
 “연변이요?”
 “연변 말고. 연변은 중국에 있는 우리 동포가 많이 사는 자치주 도
 시 이름이고 영변... 왜, 있잖아. 김소월의 시 진달래꽃에 나오는...”
 “아, 그 영변이요...”
 승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영변이면 나도 알고 있다.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영변에 약산 진달
 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하는 그 영변.
 “근데 그 영변이 왜요...”
 “그 할아버지 고향이 영변이야. 그 곳에 사시다가 남으로 오셨
 지...”



할아버지는 그러니까 실향민이었다. 영변에 사시다가 6·25전쟁이 터지기 이태 전인 1948년, 그러니까 할아버지 나이 스물다섯 살에 월남해 오셨다고 했다.

“이미 결혼도 하셨구 북에 부인과 두 아들을 남겨 놓고 오셨다고 하시더군요. 여기 남으로 오셔서도 다시 재혼을 해서 아들 하나와 딸 둘을 낳으셨다고 그러구...”

그런 이산가족의 이야기는 승우도 알고 있다. 책으로도 읽었고 TV에서 남북이산가족 만남 같은 것을 중계할 때도 많이 보았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도 그런 사연 많은 분들 중에 한 분이러니.

“그 동안 60년이 다 되게 많은 세월이 흘렀지. 스물네 살인가 다섯, 서울에 있는 친척을 찾아와 남한에 정착할 것을 의논하고 돌아가던 중에 38선의 경계가 삼엄해서 뜻을 이루지 못하다가 이어서 터진 6·25전쟁으로 남북분단이 굳어지면서 뜻하지 않게 이산가족이 돼서 60년이 다 되는 세월을 그렇게 고통 속에 사신 거지. 1948년에 남으로 오셨다고 했으니까 가만 있자... 48년이면 지금이 2006년이니까... 58년... 58년이 흘렀나... 아무튼 그 58년을 할아버지는 한번 가보지도 못하고 하루같이 두고 온 고향만을 그리워하며 사셨다니 그 한과 고통이 어땠겠나.”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살아계셔서 통일이 되는 조국의 모습을 보고 싶으셔서...그렇게 오래 사시다가 통일이 되면 건강한 몸으로 한 달음에 고향에 달려가시겠다는 일념으로...”

할아버지 나이 올해 83세라고 했다. 그러니까 스물다섯 살의 젊은 이가 본의 아니게 고향을 떠나와 신여덟 해나 가보지 못하고 있는 사이 어느덧 83세의 호호백발 노인이 됐다는 얘기였다.

아빠가 물었다.

“할아버지께서 아침마다 왜 달리기를 하시는지 아니? 연세도 높은 어른이...”

“건강을 생각하셔서 그러는 거 아녜요? 제가 살이 자꾸 찌다구 엄

마가 강제로 운동하러 내보낸 것처럼 할아버지께서도 건강을 위해서요.”

“글쎸. 건강을 위해서인 것만은 틀림없지만 정답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구나.”

“그럼 어떤 이유가 또 있으신데요.”

“맞춰봐라. 어떤 이유가 또 있겠나.”

“글쎸요. 모르겠는데요.”

승우가 고개까지 저어 보이자 아빠는 잠시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하다가 이윽고 한숨처럼 뱉어 말했다.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살아계셔서 통일이 되는 조국의 모습을 보고 싶으셔서...그렇게 오래 사시다가 통일이 되면 건강한 몸으로 한 달음에 고향에 달려가시겠다는 일념으로...”

“에? 통일이요...”

일순간 승우는 말문이 막히며 가슴 밑바닥으로부터 어떤 뜨거운 열기 같은 것이 솟구쳐 오름을 느꼈다. 오래 사시기 위해서, 그것도 이 나라가 통일이 돼서... 통일이 된 조국의 모습을 직접 보고, 전 생애를 통해 그리워하던 고향으로 달려가기 위해... 그날까지 살아남아 계시기 위해 저처럼 힘든 달리기를 하시다니...

집으로 돌아와서도 승우는 내내 그 할아버지 생각을 했다. 영변이 고향이라는, 통일이 되는 날까지 살아계시기 위해 아침마다 달리기를 하는 노인...

그날 이후 승우는 아침 운동 때마다 할아버지를 자주 볼 수 있었다. 어느덧 승우의 이름까지 알아서 “승우, 아침 운동 나왔네” 하고 인사까지 나누는 사이가 되었다. 아침 운동은 재미있었다. 할아버지 때문이었다. 새벽마다 운동을 나가고 달리기를 하는 할아버지가 눈에 띄면 “아, 할아버지가 아직도 견재하시구나” 하고 안도가 되고 하루라도 할아버지가 보이지 않으면 건강이 나빠져서 앓아누운 것은 아닐까, 밤사이에 혹시 잘못 되신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승우의 기대대로 아침마다 달리기를 하는 모습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보여주셨고 여전히 건강하신 모습이였다.

물론 할아버지께서 평생 모은 돈도 있고 또 이 쪽에도 성공한 자식들이 있으니 그만한 건 언제라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조금이라도 더 모아 보탬을 주기 위해서 말이다. 북한은 경제난이 심하다고 하는데 돈이야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겠나.”

그런데 오늘 아침이었다.

일요일이고 모처럼 가족나들이로 강화도라도 갔다 오자며 길을 나섰던 것인데 아침 운동을 하는 한강 시민공원이 아닌 장소에서 할 아버지를 발견한 것이다.

주유소에서였다.

도중에 기름을 넣으러 주유소에 들렀는데 주유소 직원 복장을 하고 기름을 넣어주는 이가 바로 할아버지가 아닌가!

아빠와 승우가 아는 체를 했고 기름을 넣고 주유소를 나서는데 할 아버지는 손까지 흔들어 주었다.

승우가 아빠에게 물었다.

“저 할아버지 어렵게 사시는 모양이죠? 늙으신 연세에 저런 힘든 일까지 하시는 걸 보면요.”

“그런 건 아니구 거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더구나.”

“이유요?”

“그래. 이번에는 통일이 된 다음을 위해서... 왜 할아버지가 고향에 두 아들과 가족들을 두고 오셨다고 하지 않았나. 부모님들이야 예전에 돌아가셔서 안 계시겠지만 부인과 아들들은 살아 있을 테니 통일이 되면 두 아들에게 집이라도 한 채씩 사주기 위해서 말이지. 물론 할아버지께서 평생 모은 돈도 있고 또 이쪽에도 성공한 자식들이 있으니 그만한 건 언제라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조금이라도 더 모아 보탬을 주기 위해서 말이다. 북한은 경제난이 심하다고 하는데 돈이야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겠나.”

승우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아빠. 통일도 중요하지만 통일 뒤에 그 동안 헤어져 살던 사람들이 모여 살자면 경제적인 것도 중요하겠죠. 전에는 통일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았는데 할아버지를 알고부터는 어서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가능하면 그것도 아주 빨리요. 영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한 살이라도 더 연세 드시기 전에요...”

“그렇지?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네 생각도 그렇지?”

아빠가 승우를 돌아보았다. 안개처럼 물기 머금은 눈이었다. ③



남·북 교역통로 역할 '톡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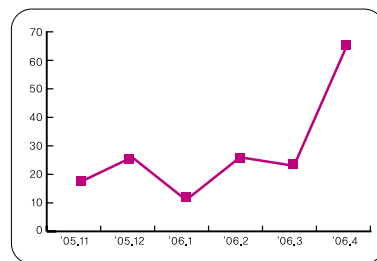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 개소 7개월

지난 2005년 7월 제10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그해 10월 개성공단 내에 문을 연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이하 경협사무소)는 분단 이후 최초로 북측 지역에 들어선 정부기관이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모았다.

또한 남북 당국간 상시적인 협의 채널을 개설함으로써 현장의 경협 여건을 개선하고, 남북기업인들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지원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다.

이렇듯, 경협사무소를 통한 신규 대북사업 추진체계가 마련됨으로써 남측 기업은 북측관계자와 직접 만나지 않고도 1차적인 대북사업 추진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우리 기업이 사업제안서와 회사소개서를 남측사무소로 보내면, 남측사무소가 북측사무소와 협의를 통해 북측의 의사를 타진한 후, 북측이 방북초청장을 발행해 주면 남북기업인이 경협사무소에서 만나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고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이다. 방북초청장 발급기간도 종래에는 1개월 남짓 걸렸으나 북측사무소와 협의를 통해 1주일 내외로 단축시키고, 초청장의 유효기간도 3개월로 확대하여 수시 방북을 통한 효율적인 사업협약이 가능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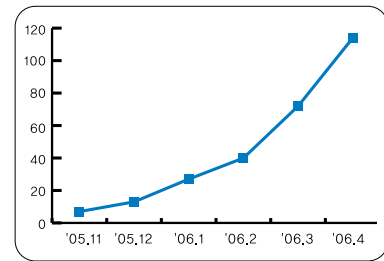
또한 경협사무소가 개소되기 전엔 주로 중국 북경이나 단둥에서 이루어지던 사업협약이 경협사무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14일 첫 사업협약 이후 올 5월 26일 현재 총 198건의 사업협약이 이루어졌고, 이를 위해 남측 632명, 북측 420명이 방문하였다. (그림 1 참조) 이렇게 남북기업인이 직접 만나 사업협약을 하게 되면서 종래 중개인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불필요한 오해의 해소는 물론 남북기업인간 상호이해와 신뢰수준 역시 높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종래 만나기 힘들었던 실무 기술자들도 사업협약 과정에 함께 참여하게 됨으로써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협의가 가능해지고, 자연히 생산제품의 품질도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 남북관계가 진전되고, 경협

추진 여건이 개선되면 경협사무소에서의 남북기업간 사업협약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협사무소가 남북기업인간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중개 기능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그림 2 참조) 경협사무소는 사업제안서 등 다양한 사업관련 문건이나 상품견본을 북측에 전달하고, 물품의 선적일자나 서류의 진위여부를 파악하여 알려주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계약문건에 대한 진위 확인은 앞으로 남북경협 추진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여 나가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5월 초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경협사무소를 이용하는 우리 기업들의 만족도는 74%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종래 중국 등 제3국에서 북측관계자를 만나 사업을 추진하던 번거로움을 없애고 서울에서 불과 6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개성에서 사업협의를 하게 됨으로써 금전적·시간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고,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애로사항의 해결을 당국 사무소가 지원해 주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반도 평화의 제도화'에 중점

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

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이 4월 21일부터 24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되었다. 금번 회담은 제17차 남북장관급회담(2005. 12. 13~16, 제주도)에서 2006년 3월에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북측이 3월 하순에 열린 한미연합선전지원훈련^{RSOI}을 이유로 4월로 연기할 것을 제안해 음에 따라 한달 늦게 개최되었다.

남측은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의 제도화'에 중점을 두고 임하였으며, 6·15공동정신의 유지,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노력,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협력 노력 등(1항~3항)을 공동보도문에 반영하였다. 또한 기존의 이산가족의 틀 내에서 논의되어 오던 국군포로와 남북자 문제 해결(6항)을 위한 실질적 해결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한 것은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

한편, 6·15 공동행사에 대한 남북 당국의 적극 지원 및 자연재해, 보건 의료, 문화재 보존 등의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한 것은 남북교류협력의 외연을 확장하고 강화함으로써 남북관계가 정치·군사적 변동에 강한 내성을 갖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경협 관련 총 9개항 합의

제1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6월 3일부터 6일까지 제8차 장관급회담의 합의에 따라 제주도에서는 제1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가 개최되었다. 남북 양측은 2차례의 전체회의 등을 통해 남북간 경제협력의 방향에 대한 9개 조항의 합의문을 채택하였다.

합의문의 주요 내용은 조건이 조성되는데 따라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 합의서' 발효(1항), 한강하구 골재채취 사업을 위한 협의 추진(2항), 개성공단 건설 및 임진강 수해방지를 위한 실무접촉 추진(3항·4항), 자연재해 방지를 위한 공동협력(5항), 경제·자원개발분야 제3국 공동진출 추진(6항) 등이다.

개성공단 건설을 위한 실무접촉은 6월 20일, 21일 이틀간 개성에서 열기로 합의하였으며,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접촉은 역시 개성에서 6월 26일, 27일 양일간 개최하기로 하였다. 또한 경추위 제13차 회의는 9월 중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확정일자는 문서교환방식으로 협의하기로 하였다.

남북 출입업무의 전문화 기여


경의선·동해선 도로 출입시설 준공식



경의선·동해선 도로 출입시설^{CRQ} 준공식이 지난 3월 15일에 있었다. 경의선 육로는 2000년 7월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 합의로, 동해선 육로는 2002년 4월 임동원 특사의 방북 합의결과로 2003년 2월부터 이용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임시출입시설을 짓고 육로를 이용하는 이들의 출경·입경^{出京·入京} 업무를 처리하여 왔다.

그 후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경의선·동해선 출경·입경 인원이 2003년 약 9만 8천명에서 2005년 약 80만 3천명으로 급증하면서 출입시설 협소에 따른 불편을 호소하는 국민들의 불만이 누적되어 왔다. 이러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2004년 9월과 6월에 각각 경의선과 동해선 출입시설공사를 시작하여 1년 6개월 만에 완공된 것이다. 경의선 출입시설은 연면적 5290평에 지하1층 지상2층이며, 본 건물 1동과 입·출경 게이트를 포함하는 부속건물 10동으로 이루어졌다. 동해선 출입시설은 연면적 4252평에 지하1층·지상2층의 본 건물과 부속건물 2동으로 지어졌다.

이번 도로 출입시설 준공으로 남북을 출입하는 국민들의 대기 공간·편의시설 부족에 따른 불편이 해소되고, 출입·통관·검역 등 분야별 출입업무를 위한 물적 공간이 확보되어 연간 경의선은 최대 약 170만 명, 동해선은 약 260만 명의 출경·입경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연면적 905평·2층 건물의 북측통행검사소^{北側通行人員檢査所} 사진은 지난 5월 22일부터 본격가동 중이다. 

주요 통계로 본 오늘의 남북관계 인적교류 규모 올 4월 현재 3만명 돌파

각 분야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남북간 교류가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활성화되고 있음이 인적·물적 통계수치를 통해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2005년 한 해 동안 남북 왕래 인원은 8만 8341명으로 2004년의 2만 6534명의 3배에 달하며, 반입^{import}·반출^{export}을 합한 물적 교역액

은 10억 5천5백75만 4천 달러로 2004년 6억 9천7백4만 달러의 2배에 달하였다. 올 4월말 현재 인적교류 인원이 벌써 3만명을 넘어섰고, 물적 교역액 역시 2억 6천만 달러에 달하고 있어 이러한 증가추세는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1. 인적 교류 현황

북한방문 현황(금강산 방문객 제외) (단위: 명)											
연도	89~97	98	99	00	01	02	03	04	05	06.1-3	계
인원	2,405	3,317	5,599	7,280	8,551	12,825	15,280	26,213	87,028	31,127	199,625
금강산 관광객 현황 (단위: 명)											
연도	98.11~12	99	00	01	02	03	04	05	06.1-4	총계	
인원	10,554	148,074	213,009	57,879	84,727	74,334	268,420	298,420	76,523	1,231,767	
연도별 남한방문 현황 (단위: 명)											
연도	89~97	98	99	00	01	02	03	04	05	06.1-3	누계
인원	575	0	62	706	191	1,052	1,023	321	1,313	327	5,570

2. 물적 교역 현황 * 대북지원, 경제협력사업(개성, 금강산, 사회문화, 기타), 경수로 사업, KEDO 반출입 금액은 제외

연도	반입			반출			합계			(단위: 천 달러)
	건수	품목수	금액	건수	품목수	금액	건수	품목수	금액	
00	3,952	204	152,373	3,442	527	272,775	7,394	578	425,148	
01	4,720	201	176,170	30,034	492	226,787	7,754	549	402,957	
02	5,023	204	271,575	3,773	495	370,155	8,796	572	641,730	
03	6,356	186	289,252	4,853	530	434,965	11,209	588	724,217	
04	5,940	202	258,039	6,953	575	439,001	12,893	634	697,040	
05	9,337	381	340,281	11,878	712	715,472	21,215	775	1,055,754	
06.1~4	4,160	278	111,567	4,910	512	34,128	9,070	572	145,705	

3. 남북협력기금 조성 및 운용현황(2006.4 현재)

조성(A)		지출(B)		보유자산		(단위: 억 원)
구분	액수	구분	액수	구분	액수	
정부출연	27,464	경상지원	16,739	대출잔액(C)	23,008	
민간출연	23	운용비용	4,146	공자기금 예탁금	600	
공자기금예수금	31,827	공자기금예수금상환	13,667	경수로계정	4,565	
운용수익	3,537			남북협력개정	318	
기타 수입금	193					
계	63,044	계	34,552			

* 순조성액 = 조성액(A) - 지출액(B) = 28,492억 원

* 현 보유자금 = 조성액(A) - 사용액(B+C) = 5,484억 원

총 11개 기업 공장 가동 중

2006년 5월 개성공단사업 현황

1단계로 개발되는 개성공단 1백만 평 중 시범단지로 분양된 2만 8천평(2004.8)에는 총 15개 기업 중 2006년 5월 현재 11개 기업이 공장을 가동하고 있으며, 2개 기업이 시험생산, 나머지 2개 기업은 공장건축 완료단계이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북측 근로자의 수도 7,046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들은 남측 근로자 558명과 함께 제품 생산에 전력하고 있다.

또한 1백만평의 본 단지 중 1차 5만평이 24개 중소기업 및 기관에 2005년 9월 분양되었는데, 이들 기업 중 현재 3개 업체가 공장을 건축중에 있다. 한편 현대아산과 한국토지공사에 따르면 올 5월 현재 개성공단 1단계 개발공정 진행률은 약 72.7%(부지조성 99.5%, 도로 등 구조물공사 46%)선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성공단 시범단지 입주기업>

업종	기업명	기업수
섬유봉제의류	의류문창기업, 삼덕통상, 신원	3
플라스틱	태성산업, SJ테크,	2
기계·전기·금속	대화연료펌프, 부천공업, 소노코쿠진웨어, 재영솔루텍, 호산에이스, 재영솔루텍	5
전자·영상	매직마이크로(가동준비중), TS정밀(가동준비중), 용인전자(공장건축중), 제씨콤(공장건축중)	4
기타	로만손	1

<개성공단 본 단지 1차 5만 평 분양기업>

구분	업종	업체명
일반공장용지	섬유봉제의류	성화물산, 지아이씨상사, 서도산업, 좋은사람들, 엠에스진글라이더, 아이보리, 코튼클럽, 평안, 제일상품, 육일섬유공업사, 녹색섬유, 에스엔지(13개)
		가족가방신말 아트랑, 제이슨상사, 밀리온스, 평화유통(4개)
협동화 사업단지	섬유봉제의류	만선, 한국마이크로유틸터, 화인레나운(3개)
		가족가방신말 삼덕통상, 영일신소재, 영화상사(3개)
아파트형 공장용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건설·분양

‘메이드인개성’ 국제무대 입성

中 전시회 특별관으로 선 보여

지난 4월 5일에서 8일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된 ‘프리뷰 인 상하이 2006’ 전시회에 개성공단관이 특별히 마련되었다. ‘made in GAESEONG, made in KOREA’ 라는 컨셉으로 꾸며진 특별관은 현재 개성공단에서 가동 중인 신원·삼덕통상·문창기업 외에 향후 입주 예정인 제이슨상사·녹색섬유·평화유통 등 총 15개사의 섬유관련 제품들이 소개되어 주목을 받았다.

우리나라와 싱가포르(2004. 11), EFTA(2005. 12), ASEAN(2006. 5)와 맺은 FTA 협정으로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이들 나라에 한국산과 같은 조건으로 수출이 가능하고, 국내 판매시에는 한국산으로 원산지표기가 가능하여 생산제품의 판로 측면에서 대내외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정부는 현재 미국과 진행되고 있는 FTA 협상에서도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과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중이다.


EFTA?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유럽자유무역연합), 1960년 5월 EU 비가입국이 만든 조직으로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4개국 회원국, 우리나라와의 FTA협정은 2005년 12월 15일 체결되었다

금강산 ‘통일수련원’ 내년 4월 개장

통일부, 건립·운영 관련 변경승인

통일부는 올 3월 31일 현대아산이 요청한 금강산 관광지구내 ‘통일수련원 건립·운영에 대한 협력사업 변경’을 승인하였다. ‘통일수련원’은 고성향 인근의 ‘금강산 패밀리비치호텔’ 뒤편에 세워질 예정으로, 2007년 4월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부지면적 4000평에 지상 8층(180실, 약 690명 수용)이며 대강당과 회의실, 옥외 체육시설을 갖춘 계획이다.

‘통일수련원’이 개장될 경우 청소년들의 금강산 방문 및 남북청소년공동행사 등의 여건이 개선되어 남북청소년교류 행사가 활성화 될 전망이다. 

편집부

총 13차례 이산가족 상봉

6·15 이후 올 3월까지 금강산 등에서

○ **대면상봉** 2000년 6·15남북정상회담에서 인도적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합의한 후, 2005년까지 이산가족 대면상봉은 12차례 있었다. 그리고 올 3월 20일부터 25일까지 13차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졌다.

(11, 12, 13차 상봉현황)

구분	11차 상봉	12차 상봉	13차 상봉
일정	'05. 8. 26~8. 31	'05. 11. 5~11. 10	'06. 3
상봉횟수	단체상봉 1회 개별상봉 1회 참관상봉 1회 송별상봉 1회 동석식사 2회	동일	동일
상봉가족수	남측 145명이 재북가족 229명 상봉 북측 100명이 재남가족 434명 상봉	남측 143명이 재북 가족 219명 상봉 북측 100명이 재남가족 441명 상봉	남측 148명이 재북 가족 239명 상봉 북측 100명이 재남가족 420명 상봉
기타	방북단에 국군포로 가족 2명 포함	방북단에 국군 포로 가족 1명 포함	

○ **화상상봉** 거동이 불편하여 대면상봉에 참여하기 어려운 고령 이산가족을 위하여 15차 장관급회담에서 논의·합의된 것과 같이, 광복 60주년이 되는 2005년 8월 15일 남북 각 20가족이 화상으로 첫 상봉을 이루었다. 그 후 1차 상봉과 2차 상봉이 같은 해 11월과 12월에 있었으며, 3차상봉은 2006년 2월에 진행되었다.

한편, 제7차 남북적십자회담(2006. 2. 21~23)에서는 6·15와 8·15를 계기로 남북 각기 200명의 금강산 특별대면상봉과 60가족씩의 화상상봉을 갖기로 합의하였다. 6·15 계기 금강산 특별 대면상봉은 6월 19일부터 30일까지 실시되며, 6·15와 8·15 계기 특별 화상상봉은 8월 9일부터 11일까지(5차)와 8월 21일부터 23일까지(6차)로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될 예정이다.

○ **이산가족면회소 건설 착공** 11차 이산가족 대면상봉이 있었던 2005년 8월 31일 금강산에서 이산가족면회소 착공식이 거행되었다. 이산가족면회소는 부지 1만 5천평에 건평 6천평, 지하 1층 지상 12층

의 건물로 2007년 7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면회소가 완공되면 보다 많은 이산가족들이 수시로 상봉할 수 있는 물리적 여건 마련은 물론 이산가족과 관련한 남북간 상시 협의창구 역할도 기대된다.


인도적 지원

○ **쌀지원**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식량난 완화를 위해 1995년부터 쌀지원을 해왔으며 2005년에는 15차 남북장관급회담(6.21~24)에서 쌀50만 톤에 대한 차관제공을 합의하였다.

육로를 통한 쌀 수송은 2005년 7월 26일 시작되어 약 3개월이 소요되었으며, 그 기간동안 4,500여명의 인원과 4,000여대의 트럭이 동·서 육로를 왕래하였다. 해로를 통한 수송은 2005년 7월 30일부터 2006년 1월 7일까지 약 4개월이 걸렸으며, 북측의 남포·해주·원산·홍남·청진 등 총 5개항이 수송항구로 이용되었고, 북한 선박이 국내산 쌀 2만 톤을 수송하는데 참여하였다.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의 북측 위원장은 2006년 2월 21일 쌀 제공에 대한 감사문을 남측 위원장에 보내왔다.

○ **비료지원** 북측의 농업생산성 증가를 돕기 위해 정부는 1999년부터 비료지원을 해왔으며, 2005년에는 총 35만 톤을 지원하였다. 1차 20만 톤은 5월 21일부터 6월 21일까지, 2차 15만 톤은 6월 29일부터 7월 25일까지 경의선 육로와 해로를 통해 전달되었다. 2005년도 의 비료지원은 그간 경색되었던 남북 당국간 대화를 재개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2006년에도 북한은 비료지원을 요청(2.1)한 바, 1차적으로 2월 28일부터 4월 10일까지 15만 톤의 비료를 해로를 통해 지원하였다. 추가 지원분 20만 톤은 5월 15일 BJ ACE호로 출항한 1차분 7천 톤을 시작으로 7월 중순까지 전달될 예정이다.

○ **북한 영유아를 위한 지원** 정부는 2006년 3월 28일 식량난·경제난의 장기화로 충분한 영양섭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의 어린이를 지원하기 위해 WHO와 북한 영유아 지원 관련 약정서를 체결하였다. 주 내용은 2006년부터 2년간 총 2,005만 달러에 해당하는 자금지원으로, 올해에는 현금 약 500만 달러, 현물 약 560만 달러 등 총 1,068만 달러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자체 · NGO의 방북행사 등

지자체 교류

지자체	사업
경기도	북한 민족화해협의회회측과 공동으로 평양시 용성구역에 3ha 시범농장건설(향후 100ha로 확대추진 예정)
인천시	제16회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9.1~4)에 북한선수단 20명과 응원단 124명 초청
강원도	기존 금강산병해충 방제사업 및 연어 부화장 지원사업 협력심화 남북강원도아이스하키대회대회 개최(2006.3. 2~5)
전라북도	황해남도 신천군 농기계 지원 및 농기계 수리공장 건설사업 지속 추진 중
제주도	1998년부터 감귤보내기 사업을 추진, 2005년에는 감귤 3천 톤, 당근 7천 톤 등 제주농산물 1만 톤 북한 전달
충북제천시	북고성군 과수원 조성사업 2004년부터 지속 추진

민간단체 교류

‘북관대첩비’ 원소재지에 복원

한일불교복지협회는 일본 야스쿠니신사에 방치된 임진왜란 당시 시 의병장 정문부 장군의 승전기록이 담긴 북관대첩비 반환사업을 북한 조선불교도연맹과 함께 추진, 2005년 10월 20일 일본으로부터 반환받았다. 2006년 3월 1일 유홍준 문화재청장을 대표단으로 하는 남측대표단은 북측에 북관대첩비를 이관하였으며, 북한은 비를 원소재지인 함북 길주에 복원하였다.



‘정성알약품공장 준공식’ 참석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대표단 99명은 2006년 2월 25일부터 28일까지 서해직항로를 통해 평양 ‘정성알약품공장 준공식’에 참석하였다. ‘정성알약품공장’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보건의료협력본부에서 2003년부터 지원한 사업으로, 이 공장을 통해서 연간 4백만~5백만 병의 수액제(링거액)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 진행

분단 60년간의 남북간 교류단절로 인한 언어의 이질화를 극복하기 위해 **(사)겨레말큰사전편찬사업회**는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2005년 2월 금강산에서 남북공동편찬위원회 결성식을 갖고 남북은 7월 평양, 8월 서울, 11월 개성에서 편찬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사전편찬요강을 합의하였으며, 올 3월에는 중국에서 5차 전체회의를 가졌다.


금강산 윤이상 음악회

대한불교 조계종이 주최하고 통영국제음악제와 윤이상평화재단, 북한 윤이상음악연구소가 공동주관하는 ‘금강산 윤이상음악회’가 4월 29일 금강산 온정각 문화회관에서 열렸다. 1,2부로 나누어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남측의 통영국제음악제 상주악단인 TIMF 앙상블과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은 파헬벨의 ‘캐논’ 및 윤이상의 초기 가곡인 ‘편지’·‘추천’ 등을, 북측의 평양 윤이상관현악단은 윤이상의 소관현악 ‘협주적 단편’ 과 여성 가곡 ‘고풍의상’·‘달무리’ 등을 연주했다.

금강산 남북 여자 프로복싱대회 생중계

MBC ESPN은 금강산 은정관 동관 광장에서 ‘남북 여자 프로복싱대회’를 개최하였다. 6월 7일 저녁 6시부터 생중계된 이번 대회는 남측 인력이 직접 북측에 투입되어 생중계를 진행하였다는 점과 향후 북측의 답방 경기가 추진되는 등 남북 스포츠 교류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2006년 독일월드컵 대북위성중계 지원

한국방송위원회는 북한 조선중앙방송위원회와 ‘남측은 월드컵 개·폐막식 및 전체 64경기 위성중계를 지원하고, 북측은 남측 대표단 경기를 최대한 편성하여 방영’하기로 하는 위성중계 지원합의서를 체결(6.9)하고, 개막식 및 독일-코스타리카 경기를 북측에 시험 송출(6.11)하였다. 지금까지 한국방송위원회는 2003년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 2004년 아테네 올림픽, 2005년 동아시아축구대회시 북측 경기화면 중계를 지원한 바 있다. 

편집부

사회단체 통일교육활동 이모저모

‘새터민’ 실무자용 교재 올 10월 발간예정

(사)남북문화통합교육원은 새터민 아동·청소년 교육 담당교사 및 NGO 단체 활동가들을 위한 교재를 오는 10월에 펴낼 예정이다. 이번 교재 개발목적은 학령기 새터민 지도를 맡은 일선학교 교사들에게 남북한 문화 및 교육 차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다.

(Tel 02-2677-8270, 홈페이지 www.togetherkorea.org)

통일캠프에 새터민 청소년 초청

한국걸스카우트연맹에서 개최하는 통일캠프 중 충남지역(부여 청소년 수련관, 6. 1~11) 캠프에 새터민 청소년 20명이 초청되어 남북청소년이 함께 단체생활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현장체험학

습을 통한 통일교육의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통일캠프는 충남지역 외 경기북부 지역(철원군 고석정 일대, 10. 22)에서도 열릴 예정이다.

(Tel 02-3705-6097, 홈페이지 www.seoulywca.or.kr)

새터민과 더불어 살기위한 여성평화통일교육

대한YWCA에서는 이달부터 7월까지 총5회에 걸쳐 ‘새터민과 더불어 살기 위한 여성평화통일교육’ 강좌를 개최한다. 노원, 양천, 거여 등 서울에서 새터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열리는 이 강좌의 취지는 새터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더불어 함께 사는 이웃으로 새터민을 바라보는 기회를 갖자는 데 있다.

(Tel 02-733-6810, 홈페이지 www.girlscout.or.kr)

통일교육원 올 상반기 주요 행사

학교통일교육 발전워크숍



통일교육원은 통일·북한문제 전문가 및 통일교육 담당교사들과의 워크숍 개최를 통해 바람직한 학교통일교육의 패러다임을 모색하고자 2005년도 미시시 지역(인천, 제주, 경남, 전남, 경북) 중심으로 2006년 통일교육 발전워크숍을 개최한다.

(2006년 상반기 학교통일교육발전워크숍 개최일정)

회차 지역	날짜	장소	협조기관
1 인천(기 실행)	4월 27일(목)	인천예술 고교 대강당	인천광역시교육청 통일교육연구회
2 제주도(기 실행)	5월 26일(금)	제주학생문화원	제주도교육청 제주지역통일교육센터
3 경남	6월 23(금)	진주산업대	경남교육청 통일교육연구회

통일미래 지도자과정 개설

통일부는 남북관계 진전에 따른 범국가적 차원의 대북정책 능력제고 필요성에 대응하여 통일교육원에 ‘통일미래 지도자과정’을 신설하였다. 통일미래 지도자과정은 국가기관의 국·과장급 및 공기업 간부 30명을 대상으로 1년간(2006. 2. 15~12. 14) 진행되며, 통일교육원과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주요 교육내용은 통일정책, 북한이해, 국제관계, 통일과정 등 4개 분야별 전문 강의와 더불어 구 사회주의권 체제진한국 사례 연구, 현장체험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이 과정을 통해 다가오는 통일미

래 상황에 대해 능동적으로 준비해나가는 전략적·혁신 지향적 리더십을 함양하고, 민·관이 협력하여 한반도 통일과정에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통합·조정 능력 배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생 통일포럼

통일교육원은 각 대학(연구소)과 함께 대학생 통일포럼을 지역별 순회방식으로 연중 개최한다.

이 행사는 대학 내 통일논의 활성화와 젊은이들의 통일 및 남북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개최되는 것으로 대학생이 주제발표를 하고 토론을 꾸려가는 학생 중심의 행사이다.

통일교육위원연찬회



전국의 통일교육위원을 대상으로 한 특별연찬이 지난 4월 13일과 14일 두 차례 있었다. 이번 연찬에는 이종석 통일부장관의 평화번영정책에 대해 특강과 통일교육원 교수들의 ‘개성공단 건설의 의미와 남북경제공동체 구축 전망’ 등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이 밖에 설용수 중앙노동경제연구원 이사장(사회통일교육교수기법), 장청수 통일교육위원 중앙협의회 의장(통일교육위원의 역할과 방향)의 강의가 있었다. 이번 연찬회를 통해서 통일교육위원들간의 네트워크 강화 및 사회통일교육 담당자로서의 사명감이 한층 더 고취될 것으로 기대된다.

통일교육소식

UNIFICATION
EDUCATION
MAGAZINE

VOL. 3 2006. 6

보내는 사람

□ □ □ - □ □ □



받는 사람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통일교육원 연구개발팀 ‘통일교육소식’ 담당자(앞)

1 4 2 - 7 1 5



본 통일교육소식(UEM)은 여러분의 마당입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의견은 통일과 평화를 염원하는 우리네 맘과 정성을 담은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그리고 질타를 바랍니다

통일교육원은 통일열매를 맺기 위한 빛과 거름이 되겠습니다

본 '통일교육소식' 지 평가 설문내용은 통일교육원 내부에서만 사용되며,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수고가 보다 나은 '통일교육소식' 지의 밑거름이 된다는 마음으로 진솔하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소식지의 내용이 재미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전혀 아니다
2. 소식지가 통일·남북관계·북한·통일교육 관련 주제를 포괄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전혀 아니다
- 2-1. 제외되거나 충분히 다루지 않는 주제가 있다면, 어떤 주제입니까?
3. 소식지의 크기(판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적당하다 ② 작다 ③ 크다
4. 소식지의 분량(페이지 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적당하다 ② 적다 ③ 많다
5. 본문의 사진과 그림·표 등의 디자인이 매거진으로서 좋다고 보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전혀 아니다

6. 소식지의 기사는 찾아보기 쉽게 배치되어 있다고 여겨지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전혀 아니다
7. 소식지에 실린 기사를 통일교육 활동(수업·강의 등)에 참고한 적이 있습니까?(통일교육 비종사자의 경우 답변하지 마십시오)
① 있다 ② 없다
8. 소식지를 통해 통일교육 담당자들의 활동을 알 수 있어 통일교육 담당자들 간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십니까?
(통일교육 비종사자의 경우 답변하지 마십시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 8-1. 네트워크 구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통일교육 담당자들을 소개하는 기사가 적기 때문이다.
② 소개된 사람의 연락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③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을 소개했기 때문이다.
④ 네트워크 구축 자체가 의미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⑤ 기타_____
9. 소식지가 주변의 동료나 학생들에게 권해줄 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전혀 아니다
10. 현재 소식지의 발간주기는 반년간(6개월 간격)인데, 이 주기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 10-1. 적당하지 않다면, 발간주기는 어떻게 변경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① 월간 ② 격월간(2개월 간격) ③ 계간(3개월 간격) ④ 연간
11. 귀하가 생각하기에 소식지는 누구에게 가장 도움이 되겠습니까?
① 통일교육담당교사 ② 북한·통일문제전문가 ③ 시민단체 등 활동가 ④ 중·고등학생 ⑤ 일반국민
⑥ 기타_____
- 11-1. 위에서 답한 사람들에게 보다 유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좀 더 보강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① 흥미 있는 기획기사 ② 깊이 있는 통일교육 관련 기사 ③ 새로운 남북관계 관련 기사 ④ 참신한 디자인과 편집
⑤ 기타_____
12.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성 ② 여성
13. 귀하의 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20세 미만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60대 이상

끝까지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관련 문의 : 통일교육원 연구개발팀 Tel : 02-901-7165, Fax : 02-901-7088

통일교육소식

UNIFICATION EDUCATION MAGAZINE

VOL. 3 2006. 6

'설문' 을 보내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300자 서평

'장애'를 모르는 통일교육 지평 제시

장애인과 함께하는 통일교육 / 김경민 외 4인 공저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신체적·사회적 제약으로 통일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네 현실. 이에 통일교육문화원에서는 국내 처음으로 시각장애인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점자와 오디오를 이용한 통일교육 교재개발 및 보급을 기획, 1년간 장애우와 함께 금강산 및 분단지역의 체험통일여행과 놀이를 통한 통일교육을 시행하면서 그들이 가장 알고 싶어 하는 내용들을 담아냈다. 책의 구성은 마산시 시각장애인 도서관 회원 및 경기 시각장애인 협회의 자문을 받아 △참여정부의 대북정책 △남북한 교육의 다름과 같음 △남북교류 현황 △

효과적인 북한 장애인과의 나눔 등 총 4부로 구성되었다. 오디오는 점자 책자에 수록된 참여정부의 통일정책, 남북한의 교육의 다름과 같음 그리고 통합을 수록하였으며 통일교육문화원 김경민 원장의 방북경험을 드라마로 구성한 '새롭이의 통일일기' 4편을 추가한 것이 이채롭다. 본 책자는 김경민 원장 외 오기성 박사, 김병로 박사, 이재서 박사 등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한편 이 책자와 오디오는 매년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하여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통일교육문화원, 2005년 12월, 비매품

내부자의 시각으로 본 북한의 미래 10년 후의 북한



북한 출신의 엘리트 9명이 그들 내부의 시각으로 각기 익숙한 자기 전문분야를 통해 북한의 10년 후를 전망하고 있다. 김일성-김정일 체제의 유지 가능성, 북한의 군사정책과 대남정책 등의 정치적 측면은 물론, 북한 경제와 IT기술의 발전양상, 현재의 북한주민들의 모습 등 경제와 사회적 측면도 나름의 철학을 갖고 꼼꼼하게 서술하고 있다. (안찬일 외 9인, 인간사랑, 2006년 3월, 15,000원)

109가지 요리가 망라된 북한요리 입문서 북한요리 따라하기



북한이 고향인 실향민들에게 어찌 그 맛을 잊으랴. 하지만, 남한의 젊은 세대들에게 이국적으로까지 느껴질 다른 한 쪽의 우리민족 109가지 요리가 사진과 함께 실려 있다. 양고기 버섯찜, 물고기 완자찜, 간소다진 쇠고기 찜, 쏘가리 완자국 등 이름마저 생소하지만 우리네 입맛에 그리 설지 않은 북한요리를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북한요리 입문서이다. (양향자 지음, 크로바출판사, 2006년 3월, 13,000원)

통일교육원 발간 주요서적

통일교육원에서는 남북관계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통일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기본교재' 2종과 '통일교육지침서' 2종을 지난 3월에 발간·배포하였다. 기본교재 중 '북한이해'는 북한의 분야별 변화 실상을 수정·보완하였고, '통일문제이해'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등 최근의 주변정세와 참여정부의 평화변영정책 및 남북관계의 분야별 진전을 수록하였다. 작년에 이어 대상별로 이원화되어 발간된 '통일교육지침서' 중 '학교용'은 학급별·교과별 지도방법을 수록하였고, '일반용'은 간결하고 명쾌한 서술을 통해 사회통일교육현장에서 쉽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지난 4월에는 '주제가 있는 통일문제 강좌' 시리즈로 '김정일 시대 북한교육의 변화⑩'와 '북한법을 보는 방법⑪'을 발간하였다. 전자는 경제난·식량난 이후 시장경제의 부분적 경험이 북한의 교육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으며, 후자는 북한법에 나타난 북한사회의 변화상 및 북한법에서 보여지는 현실과 규범과의 괴리(이중성)문제를 다루고 있다. '주제가 있는 통일문제 강좌' 시리즈는 통일·북한 관련 다양한 소재를 발굴·발간하는 소책자로 금년에도 인터넷 공모를 통해 새로운 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위 6가지 책은 모두 통일교육원 (www.uniedu.go.kr) 자료실에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⑩





더불어 어울려져 너, 내가 아닌 '우리' 로
한반도 허리를 부여잡고 함께 춤추는 그 날을 위해
통일교육원은 '통일열망' 의 작은 불씨가 되겠습니다

